



강원학 연구보고 15

고고자료로 본 고대 예맥역사문화권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of Ancient Yemaek based on
Archaeological Data



김규운

발간사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원학 관련 연구 공모를 실시하여 강원학 기초토대 연구 주제로 적합한 2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한 편인 「고고자료로 본 고대 예맥역사문화권 기초연구」는 당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역사문화권정비법)」 입법 시에 포함되지 못했던 강원 문화권이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포함된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선행연구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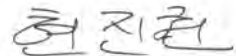
고대 예맥역사문화권의 설정에 대해서는 개별 소국에 대한 설정에 치우친 나머지 전체적인 예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제정된 입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와 함께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예맥역사문화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통해 강원도의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에 대해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권정비법을 잘 활용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방안과 관련 연구의 정립, 그리고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 등 예맥역사문화권과 관련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고대 역사문화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 보존, 정비, 활용까지 활발한 논의의 토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집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규운 강원대학교 교수님과 심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전문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2년 12월

강원연구원장





요 약 문

I. 서론 1

II. 「역사문화권정비법」의 내용 5

 1.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 과정 5

 2.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 의의 9

 3.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4

III. 권역별 역사문화권정비법 사례 고찰 71

 1. 가야역사문화권 7

 2. 마한역사문화권 20

 3. 중원역사문화권 22

IV. 예맥역사문화권의 설정 2

 1. 예맥역사문화권의 범위 2

2. 문헌자료	31
2.1 국외문헌	31
2.2 국내문헌	38
2.3 기타	40
3. 고고자료	41
3.1 여(철)자형 주거지	48
3.2 중도식토기	64
3.3 적석층	67
3.4 강원지역과 북방지역의 교류 양상	97
V. 예맥역사문화권의 활용방안	98
1. 기본방향과 인적(조직)구성	98
2. 문화유산 정비방안	99
3. 예맥역사문화 이전과 이후	110
4. 전반적인 과제	111
 참고문헌	 117
 Abstract	 123

CONTENTS

표 목차

<표 II-1> 역사문화권 관련 법률 발의 현황 7

<표 II-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목록 9

<표 II-3> 3대 목표와 전략 과제 및 사업6... 1

<표 III-1> 마한문화권 조사·연구 기본 계획의 전략목표와 실행과제1..... 2

<표 IV-1> 연구자별 외줄구들의 계보 비교6... 4

<표 IV-2> 영서지역 취락군 유구 수량8... 4

<표 IV-3> 영동지역 취락군 유구 수량0... 5

<표 IV-4> 춘천 중도동유적 원삼국~삼국시대 유구현황2..... 5

<표 IV-5> 중부지방 적석총 형식 분류 제 견해0... 7

<표 IV-6> 북한강유역 낙랑계토기 출토 현황3... 8

<표 IV-7> 2012년 기준 제철유적 지역별 및 시기별 분류7..... 8

<표 IV-8> 2012년 이후 제철유적 지역별 조사 수8... 8

<표 V-1> 각 지역별 유적전시관과 활용 내용6... 9

<표 V-2> 강원외 고분 현황표501

<표 V-3> 광역권 관광개발 추진 현황411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II-1> 역사문화권 범역 구체화를 위한 기본 요소	0	1
<그림 II-2>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개념도	1	1
<그림 II-3>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전략 과제	5	1
<그림 III-1> 마한역사문화권 발전 협약서	1	2
<그림 III-2> 중원연구포럼 조직도	6	2
<그림 IV-1> 예맥역사문화권의 공간적 범위	0	3
<그림 IV-2> 예맥역사문화권 관련 주요 유적 분포도	3	4
<그림 IV-3> 여(철)자형 주거지 내부 공간 활용 모식도	7	4
<그림 IV-4> 여(철)자형 주거지 평면형태 및 노시설 변화 양상	1	5
<그림 IV-5> 춘천 중도동유적 원삼국시대 유구 현황도	4	5
<그림 IV-6> 춘천 중도동유적 편년도	5	5
<그림 IV-7> A구역 원삼국시대 유구 전경	7	5
<그림 IV-8> A구역 원삼국시대 유구 조사 사진	8	5
<그림 IV-9> 동해 망상동유적Ⅱ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노지 양상	1	6
<그림 IV-10> 동해 망상동유적 중도식 주거지 중복관계	2	6
<그림 IV-11> 동해 망상동유적 원삼국시대 주거지 항공사진	2	6
<그림 IV-12> 동해 망상동유적 출토 토기류 ①	3	6
<그림 IV-13> 동해 망상동유적 출토 토기류 ②	3	6

<그림 IV-14> 시기별 토기 기종	6·6
<그림 IV-15> 강원지역 적석총	9·6
<그림 IV-16> 한강 및 임진강 유역 적석총 분포	0·7
<그림 IV-17> 화천 원천리 서오지리적석총 전경	4·7
<그림 IV-18> 서오지리적석총 동분 적석(상), 동분 수습 유물(하)	4·7
<그림 IV-19>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	5·7
<그림 IV-20>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 축조 모식도	7·7
<그림 IV-21> 광주 곤지암 적석총 전경	8·7
<그림 IV-22> 강릉 하시동 추정적석총 위성사진과 수평단면도 병합결과	8·7
<그림 IV-23> 청호동유적 원경(좌) 불로치까유적 원경(우)	0·8
<그림 IV-24> 속초 청호동유적 출토 토기류	0·8
<그림 IV-25> 불로치까 유적 출토 토기(좌)와 청호동 유적 출토 토기(우)	0·8
<그림 IV-26> 북한강유역 낙랑계토기 출토 취락유적 분포도	2·8
<그림 IV-27> 낙랑지역과 춘천지역의 평저호	4·8
<그림 IV-28> 강릉 초당동 출토 오수전	5·8
<그림 IV-29> 우두동 유적에서 낙랑계유물이 출토된 주거지 분포	6·8
<그림 V-1> 마한 학술경연대회 홍보포스터	3·9
<그림 V-2> 횡성 둔내유적 나-2호 주거지와 둔내유적의 현재 모습	4·9
<그림 V-3> 정선 아우라지 적석분묘 정비 완료 후 모습	5·9
<그림 V-4> 중국 서안 대명궁 유적 정비 사례	8·9
<그림 V-5> 일본 요시노가리유적 유적 정비 사례	0·1
<그림 V-6> 춘천 천전리유적(상)과 천전리식 주거의 출현과정 모식도(하)	3·0·1
<그림 V-7> 강원지역 고분의 분포	401
<그림 V-8> 춘천지역 고구려 고분 분포도 및 춘천 방동리고분	9·0·1

<그림 V-9> 니하(泥河, 한강상류) 주변의 신라 산성 배치도	9·10
<그림 V-10> 정양산성 전경 및 주요 시설	10·11
<그림 V-11> ‘일본유산(JAPAN HERITAGE)’ 홈페이지	3·11

요 약 문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역사문화권정비법)」이 입법되었다. 이 때 가야문화권과 마한문화권 등의 지자체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고,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이라고 하는 6개의 문화권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원도는 역사문화권 설정에 속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른 문화권의 경우 대부분 고분 중심인데 비해, 강원도는 삼국의 중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삼국이 고분문화를 형성할 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소속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기에 따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고분을 많이 축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 1월 18일 역사문화권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 중원역사문화권과 함께 예맥역사문화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으나 다른 역사문화권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문화권 설정은 한편으로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예맥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예맥논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개별 소국에 대한 설정에 치우친 나머지 전체적인 예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예맥이 무엇인지, 그 문화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정비하고 복원하고 활용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왕 제정된 입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와 함께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들간의 협력, 전담 조직의 구성, 후속 세대 양성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예맥역사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통해 강원도의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리

고 역사문화권정비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어떠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지 등 예맥역사문화권과 관련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고대 역사문화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 보존, 정비, 활용까지 활발한 논의의 토대가 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

서론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인해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역사문화권정비법)」이 입법되었다. 이전에는 경주,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 문화유적 조사, 정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야문화권과 마한문화권 등의 지자체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이라고 하는 6개의 문화권이 설정되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입법에는 지자체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야문화권의 예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5년부터 가야사라는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2010년 ‘가야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당시 10개 시·군이 참여하던 것이 20여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가야 문화권 자원 개발을 숙원사업으로 요구하였고, 2017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인프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유산 확충, 지역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 동서 화합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가야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가야사

연구와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이 마련되었다.

고대 역사를 밝히는 학술적인 영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보존, 정비하는 것에는 중앙 정부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자의 관점이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각 지자체의 움직임에 힘입어 역사문화정비법이 입법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원도는 역사문화권 설정에 속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른 문화권의 경우 대부분 고분 중심으로, 강원도는 삼국의 중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삼국이 고분문화를 형성할 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소속이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기에 따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고분을 많이 축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단지 자료 부족만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야문화권과 마한문화권에서는 지역 내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입법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2022년 1월 18일 역사문화권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 중원역사문화권과 함께 예맥역사문화권이 설정되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입법에서 소외되었다가 이를 회복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지만,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른 역사문화권에 비해 준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예맥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예맥논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개별 소국에 대한 설정에 치우친 나머지 전체적인 예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예맥이 무엇인지, 그 문화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정비하고 복원하고 활용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기왕 제정된 입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와 함께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들 간의 협력, 전담 조직의

구성, 후속세대 양성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예맥역사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통해 강원도의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역사문화권정비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어떠한 연구를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등 예맥역사문화권과 관련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고대 역사문화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보존, 정비, 활용까지 활발한 논의의 토대가 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역사문화권정비법」의 내

1.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 과정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2020년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되기까지 문화유산 관련법은 점(點)적인 문화재 차원의 보존에서 도시차원의 면(面)적인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으로 점차 확대되어왔다(건축공간연구원·온공간연구소 2021).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2011년 개정을 거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으로 법률 명칭이 개칭되었다. 고도육성법은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랜 시간 지속되어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寶庫)로 인정받고 있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은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역사·문화적 자산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문화재청 2021). 「고도육성법」은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고도지역의 문화재 보존과 함께 문화재 주변을 포함한 역사문화환경을 명실공히 고도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였다(문화재청 2012).

「고도육성법」은 동결식 면적 보존과는 달리 입체적 보존을 시도하고, 육성지구의 지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였다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법률에 고도의 대상을 한정하고, 정책과 사업 추진의 대상 범위를 해당 지자

체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건축공간연구원·온공간연구소 2021). 이를 바탕으로 2010년대에 들어 역사문화권 관련 다수의 법률이 발의되었다.

역사문화권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은 총 8건이다. 이 중 역사문화권의 제도 제정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대역사문화권’으로 발의한 법률은 총 2건으로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2017)과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2018)이다.

역사문화권을 개별로 발의한 법률은 가야, 마한, 탐라 각각의 문화권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건이 발의되었다. 이 중 가야역사문화권과 관련된 법률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발굴·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5, 2016),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2017)으로 총 3건이 발의되었다. 마한역사문화권과 관련된 법률은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문화권 정비·활용을 위해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2019)이 발의되었다. 탐라역사문화권과 관련된 법률은 탐라 연구·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진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2018),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2019)으로 총 2건이 발의되었다.

그 외에 역사문화권의 관점에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2017),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2017) 3건이 발의되었다. 역사문화권 관련 법률 발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역사문화권 관련 법률 발의 현황(건축공간연구원·온공간연구소 2021)

권역 대상	의안명	소관부처	제안일자	비고
역사문화권	1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7.12.15.	
	2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청	2018.03.13.	
	3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2019.04.11	법률 제17412호 2020.6.9. 제정
개별문화권	1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5.07.23.	
	2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6.06.16.	
	3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7.08.25.	
	4 탈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	2018.11.01.	
	5 탈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9. 11. 5.	
	6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9.06.27.	
기타	1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7.02.28.	법률 제17418호 2020.6.9. 제정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7.05.29.	법률 제16779호 2019.12.10. 제정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문화재청	2017.05.30.	

이처럼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역사문화권 관련 법안이 제안되면서, 역사문화권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고대 역사문화권의 확립과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과 정비 및 활용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오히려 역사문화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를 목적으로 당시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통합한 것이 2019년 4월 발의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019757,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이다. 이후 2020년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법률 제 17412호)이 제정되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이 곧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

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남북한 간 교류를 통한 역사문화의 동질성 회복 여건이 조성되면서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 환경 전반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유산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점(點)단위의 문화재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의 면(面)적 개념을 도입하여 역사문화권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주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 의안번호 2019757).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시대별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가 입증된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4개의 문화권으로 구분하였다. 처음 발의된 4개 권역의 역사문화권은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수정 가결되면서, 마한역사문화권과 탐라문화역사권 2개의 권역이 추가되며 2020년 6월 제정되었다.

2020년 6월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 이후로 법안의 내용, 특히 ‘역사문화권’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법률의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를 통해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한 총 6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된 이후,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이 신설되었고, 2022년 7월 19일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현재 ‘후백제역사문화권 신설’에 관한 법안 1건이 추가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II-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목록

연번	의안번호	대표발의(제안일자)	주요 내용	비고
1	2104463	윤영덕의원(2020.10.8.)	마한역사문화권(광주, 전남 포함)	
2	2104818	이상직의원(2020.11.2.)	마한역사문화권(광주, 전남, 전북 포함)	
3	2106499	문진석의원(2020.12.16.)	마한역사문화권(광주, 전남, 전북 충청 포함)	
4	2107795	도종환의원(2021.1.29.)	중원역사문화권(충북, 강원, 경북 일부) 신설	
5	2109026	이종배의원(2021.3.23.)	중원역사문화권(충북, 강원, 경북, 경기 포함)	
6	2110051	허영의원(2021.5.12.)	예맥역사문화권(강원) 신설	
7	2112869	신정훈의원(2021.10.18.)	문화권별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 추가	문제위 계류
8	2114633	김성주의원(2022.1.28.)	후백제역사문화권(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신설	문제위 계류
9	2117513	배현진의원(2022.9.23.)	문화재→국가유산 표기 개정	문제위 계류

2.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 의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1장 총칙 제1조에 따르면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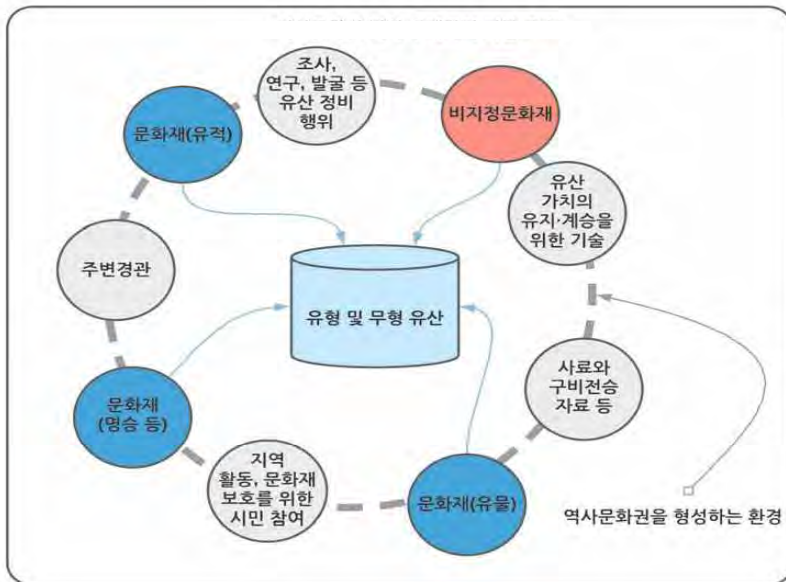
제2조의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역사문화권”을 정의하고 권역별 시공간을 규정하였다.

-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을 말한다.
-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제2조 2항에서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역사문화환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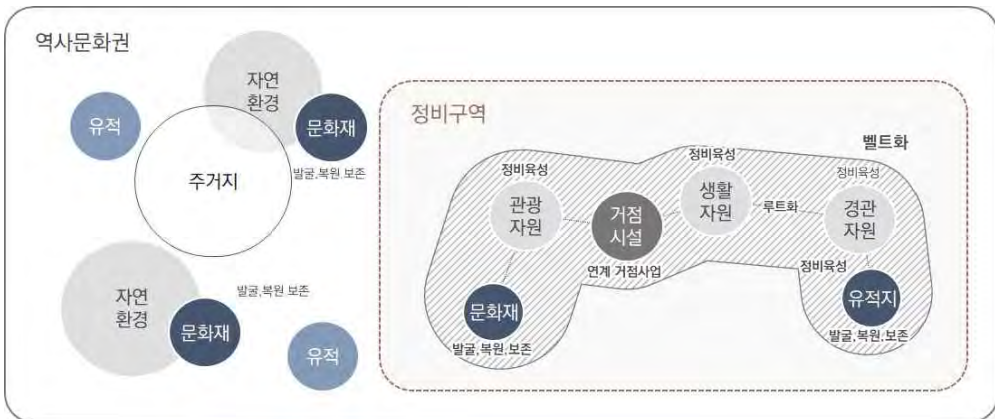
<그림 II-1> 역사문화권 범역 구체화를 위한 기본 요소(문화재청 2022)

제2조 3항에서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 4항에서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제14조 1항에 따르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9조)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림 II-2>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개념도(건축공간연구원·온공간연구소 2021)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었다.

- ① 이 법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었다.

- ① 역사문화권은 과거·현재·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정비 되어야 한다.
- ② 역사문화권의 유형·무형 유산은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③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정비를 위한 정책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를 둔다(제6조).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9조).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14

조).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둘 수 있다(제27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 의의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고도에 국한되었던 면단위 정비의 확대 적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도육성법」에 따른 보호 및 관리는 동결식 면적 보존관리에서 나아가 도시 내 공간단위의 계획적 접근과 입체적 보존관리를 시도하였으며, 규제로 인한 주민지원과 주민재산권 보호 조치 강화 등을 병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도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역사문화환경의 종합적인 반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지구 중심의 보존관리가 집중되어 지구 밖 주변지역의 관리제도 기반은 부족하였다. 이에 반하여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권역의 차원에서 역사문화환경을 거시적·통합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면단위 정비의 확대를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문화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정비 방식의 다양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위 문화재 중심의 정비 방식은 개별 문화재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면서 문화재를 향유하는 방식에 획일적인 형태를 초래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단위 문화재와 그에 인접한 구역, 또는 지정지구 내의 한정된 공간에 국한된 정비 방식과 다르게 유형·무형의 역사문화환경 일체의 요소에 대해 다양한 정비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역사문화환경은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비지정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가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지자체 단위로 시행되어 왔던 문화재 정비의 국가 시행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개별 문화권의 단편적인 개별 유적에 대한 조사나, 고고유적의 실체 규명에 집중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가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져 왔기에 종합적인 관점의 연속적인 문화권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역사문화권정비법」을 통해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하는 역사문화권의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문화재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건축공간연구원·온공간연구소 2021: 50-51).

3.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문화권정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5년 주기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자,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권의 정비를 위해 설정한 국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지자체에 제시하는 중기적 종합 계획이며, 역사문화권의 광범위한 공간 범위로 구성된 초광역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이 기 수립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비기본계획의 목표는 역사문화권의 조사와 보호 및 활용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광역, 기초지자체 등 각 주체들이 효과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실천과제 및 실행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3대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6대 전략과제와 16개의 주요 사업을 구상하였다.

먼저 정비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2년~2026년(5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역사문화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 8개의 역사문화권이며, 향후에 법률 개정으로 추가되는 역사문화권을 포함한다(문화재청 2022). 내용적 범위는 「역사문화권정비법」 제9조 1항에 따른 항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자원 확보 및 그 밖에 정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정비기본계획은 “고대의 역사문화, 오늘의 유산, 미래의 자산”이라는 비전을 표방하며, ‘역사문화권 가치규명과 새로운 가치창출’, ‘지역 정체성이 강화되는 역사문화권’, ‘고대 역사문화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 ‘고대의 역사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 경제와 문화배양에 기여하는 역사문화권’을 지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바로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 시행 초기인만큼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제도 정착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실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문화권 정비의 토대가 되는 기초 조사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존의 문화재 보존 중심의 정비방식으로 인해 유연한 정비실행의 한계가 있으며, 관광산업 인프라 등 민간영역 관련 산업기반 형성이 미비한 상황 속에서 비물적·인적 자원 등의 소프트웨어적 가치를 지향하며 지원과 정비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사문화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시민·기관·기업 등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 기회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공공주도의 기존 문화재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목표1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	정책과제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구축	정책과제2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
목표2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정책과제3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	정책과제4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및 산업활성화 촉진
목표3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거버넌스 형성	정책과제5 시민참여 및 활동 유도	정책과제6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

<그림 II-3>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전략 과제

(건축공간연구원·온공간연구소 2021)

이러한 3대 목표를 바탕으로 <그림 II-3>과 같은 6대 전략 과제를 도출하였고, 전략 과제별로 <표 II-3>과 같은 16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하였다.

<표 II-3> 3대 목표와 전략 과제 및 사업(건축공간연구원·온공간연구소 2021)

목표 1.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	
정책과제 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	
1-1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기준 마련	1-1-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기초가이드 마련
	1-1-2 정비시행계획 계획수립 지침 마련
1-2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법제도 정비	1-2-1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
	1-2-2 역사문화권 성과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1-2-3 역사문화권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1-3 부처·부서 협력체계 마련	1-3-1 부처협업 연계 정책모형 개발
	1-3-2 지자체 역량 증진 지원
정책과제 2.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	
2-1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2-1-1 역사문화환경 목록화 조사
	2-1-2 역사문화권 사·공간 범위 및 개념 정립 연구
2-2 역사문화권 조사 및 연구 인프라 구축	2-2-1 역사문화환경 조사·연구 및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2-2-2 역사문화권 DB 및 포털 구축
	2-3-1 역사문화권 가치조명 심화연구
2-3 역사문화권 가치심화연구 및 발굴조사 정비	2-3-2 역사문화권 비지정 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2-3-3 국가에 의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목표 2.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정책과제 3.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	
3-1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	3-1-1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지원체계 구체화
	3-1-2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
3-2 역사문화 SOC 조성	3-2-1 역사문화 SOC 개념 정립 및 실행 타당성 검토 연구
	3-2-2 역사문화 SOC 조성사업 추진
정책과제 4. 역사문화기반 창업 지원 및 산업 활성화 촉진	
4-1 역사문화기반 창업 지원 및 육성	4-1-1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육성
4-2 유적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활용 연구	4-2-1 역사문화환경 디자인 가이드 개발연구
	4-2-2 유적 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R&D) 기획연구
목표 3.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거버넌스 형성	
정책과제 5. 시민참여 및 활동 유도	
5-1 역사문화권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5-1-1 시민참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1-2 지역활동가 교육 및 육성
	5-1-3 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5-2 기관·기업·단체의 참여 유도	5-2-1 관련 공공기관 협업체계 마련 연구
	5-2-2 민간기업 역사문화권 활동 및 참여 유도방안 연구
	5-2-3 역사문화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정책과제 6.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	
6-1 역사문화권 전담기구 설립 지원	6-1-1 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
	6-1-2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기본구상 연구
	6-1-3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지원
6-2 역사문화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2-1 역사문화권 거점대학 선정 및 정비업무 수행
	6-2-2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교과과정 개설
6-3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확대	6-3-1 학술대회 및 학술주간 등 행사 개최
	6-3-2 국제교류·협력 및 대응전략 연구

III

권역별 역사문화권정비법 사례 고찰

예맥역사문화권과 관련된 기왕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다른 역사문화권의 진행 상황을 살펴 보면서 각 장·단점을 분석하여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2004년 제정된 「고도보존육성법」에 따라 일찍이 고도로 지정되어 연차적으로 복원·정비가 추진되어 온 신라역사문화권과 백제역사문화권과 달리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가야역사문화권과 마한역사문화권 그리고 2022년 1월 「역사문화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신설된 중원역사문화권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의 경우 2010년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2019년까지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달성군과 고령군, 함안군 등 경남·북 8개군(931.9km²)에 총 사업비 9천 158억원을 투입해 37개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었다.

2012년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관광정책 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가야문화권 지자체 단체장들에 의해 「신라·가야·유고 문화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안되었다.

2015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지자체 단체장과 가야문화권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 특별법의 제정 요구를 통해 의제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가야문화권 지자체 단체장은 협의회를 통해 지역 발전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요청하였고, 지역 국회의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책 의제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입법부, 학계의 노력이 집중되어 정책 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5년부터 가야사라는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결성하였는데, 결성 당시 10개 시·군이던 것이 2022년 현재 26개 시·군으로 늘어났다.¹⁾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가야문화권 협의회)’를 주축으로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정비, 가야문화권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5),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6)이 그것이다.

2017년에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 인프라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유산 확충, 지역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 동서 화합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2017)을 제안하였다. 2018년에는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고대역사문화권을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2018)이 제안되었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9).

이처럼 가야역사문화권의 경우 2010년대 이후 가야역사문화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1) 2005년 결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5개 광역시·도(전남·전북·대구·경북·경남) 26개 시·군(여수·진주·광양·순천·구례·남원·장수·진안·완주·곡성·임실·거창·고령·김해·고성·달성·산청·상주·성주·의령·창녕·하동·함안·창원·함양·합천)으로 확대되었다.

특별법안 등을 제안하며 역사문화권 단위로 종합적 접근을 통한 기본계획을 기 수립하였다. 2020년에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또한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유적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연구 및 행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역단위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가야문화권협의회를 결성한 뒤 가야문화권 시·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량을 결집하고, 공동발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영·호남지역의 35개 국·공립·대학박물관이 가야와 관련된 전시 및 사업의 공동연구·개발·홍보 및 가야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가야문화권 박물관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21년 경상남도과 경남연구원은 가야역사문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가야사의 지속가능한 연구 및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가야역사문화권의 경우 가야역사문화권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다수의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등을 통한 지자체 간의 협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가야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위한 시설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착공식을 가졌다. 김해에 마련되는데 내부에는 유물·문헌자료·발굴기록·보고서를 보관하는 수장 공간,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대회 등을 여는 연구·학술 공간, 그리고 관람객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으로 나뉜다. 이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있고, 김해지역에는 국립김해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역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그리고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가야문화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마한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취지에 맞는 지자체 조례와 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역사문화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전라남도는 특히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을 전후하여 마한역사문화 복원을 위하여 마한역사문화권과 관련된 계획을 시행하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2017년 11월 마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12월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2020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2018년 4월 「전라남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전라남도 내 11개의 시·군과 8개의 유관 기관²⁾은 ‘마한문화권 지역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마한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2020 영산강유역 마한문화포럼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연계 행사로 ‘2020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마한역사문화권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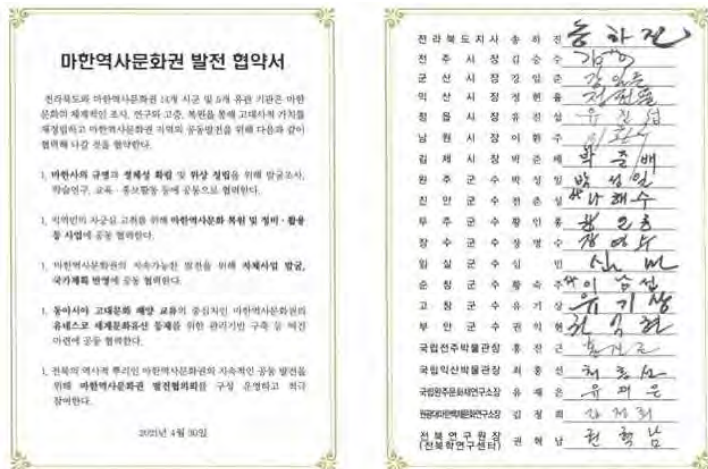
특히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2020년에 마한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문화유적의 현황 파악과 중장기 조사·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중장기 조사·연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과 연계하여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본 계획은 마한역사문화권 내의 마한의 문화유산에 관한 발굴조사와 연구, 유적의 정비 방향과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로 규정된

2)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신안군, 국립나주문학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전남대학교 박물관, 목포대학교 박물관, 동신대 영산강 문화연구센터, 전남문화관광재단, 마한연구원, 나주 북암리전시관.

마한의 역사문화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21: 21). ① 마한역사문화권의 역사적 실체 규명 ②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시민 향유 여건 조성 ③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 연구의 중심으로서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라는 3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III-1> 마한문화권 조사·연구 기본 계획의 전략목표와 실행과제(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21)

전략목표	I	마한역사문화권의 역사적 실체 규명
실행과제	I-1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I-2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주요 유적 조사·연구
	I-3	마한사 복원을 위한 학제간 융합 심화 연구
전략목표	II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시민 향유 여건 조성
실행과제	II-1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보존·관리 기반 확보
	II-2	마한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연구
	II-3	마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및 홍보
전략목표	III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 연구의 중심으로서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
실행과제	III-1	마한 역사·문화자원 통합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체계 구축



<그림 III-1> 마한역사문화권 발전 협약서
(익산시 제공, 노컷뉴스 2021.05.06일자 기사)

마한역사문화권이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려는 움직임에 반해 전라북도 또한 2020년에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1년 4월에는 전라북도 내의 14개의 시·군과 5개의 유관 기관³⁾이 전북 지역 마한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마한역사문화권의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마한역사문화권 내의 지자체의 경우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취지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노력에서 나아가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고대시기에 해당하는 후삼국시대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사 전개과정에서 후삼국시대의 의미와 가치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역사문화권 설정에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조법중 2021). 이미 8개의 역사문화권이 설정되면서 한반도 전체가 역사문화권의 시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므로 추가의 역사문화권 설정이 필요한지, 나아가 고대 이전의 역사문화권도 설정이 필요한지 등 현행 법률의 보완 방향에 대한 화두를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 셈이다.

3. 중원역사문화권

중원역사문화권의 경우 예맥역사문화권과 마찬가지로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 당시에는 제외되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2022년 예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신설되었다. 중원역사문화권에 해당하는 지자체와 충청북도 지역의 관련 학계는 2020년 6월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중원역사문화권이 제외되자,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시

3)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키기 인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먼저 2021년 1월 충북,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중원역사문화권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의안번호: 2107795,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이어 2021년 3월 중원역사문화권에 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일부개정안 또한 발의하였다(의안번호: 2109026,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3월 도종환 국회의원이 주최하여 충청북도와 충북 문화재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원역사문화권 설정과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원역사문화의 형성과 의미’, ‘고고자료를 통해 본 중원역사문화권의 시·공간적 변화양상’,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중원역사문화권의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법률안 입법 심의 자료로 제출하는 등 중원역사문화권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성정용·양시은, 2021).

“국토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중원은 지리적으로 충주를 중심으로 계림령과 죽령,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을 통해 남북으로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 지역으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미 고대 국가가 태동하는 마한 시기부터 서쪽으로는 미호천 유역인 청주와 진천 일대, 동쪽으로는 충주 일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후 백제·고구려·신라가 중원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그 가운데 삼국 문화의 교섭과 융합으로 중원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신라는 중원경을 중심으로 청주에는 서원경, 원주에는 복원경을 설치하는 등 중원 지역을 계속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원 지역은 고대 국가가 서로의 생존을 위해 소통하고 교류하며 한편론 끊임없이 부딪치던 곳으로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문화들이 용광로처럼 융합되고 새로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간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보고라 할 수 있다. 그간 백제·고구려·신라와 같은 고대 국가 중심의 사관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그 온전한 가치를 간과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처럼 중원 지역의 엄청난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이어서 2021년 4월에는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하여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

비전 설정'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 '고고자료를 통해 본 중원역사문화권의 조사와 연구현황' 등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충북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과 비전을 마련하였다.

2022년 1월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중원역사문화권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충청북도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정립과 성격 규명을 위하여 충북문화재연구원과 함께 학술조사 등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올해부터 '중원역사문화권 자료집성 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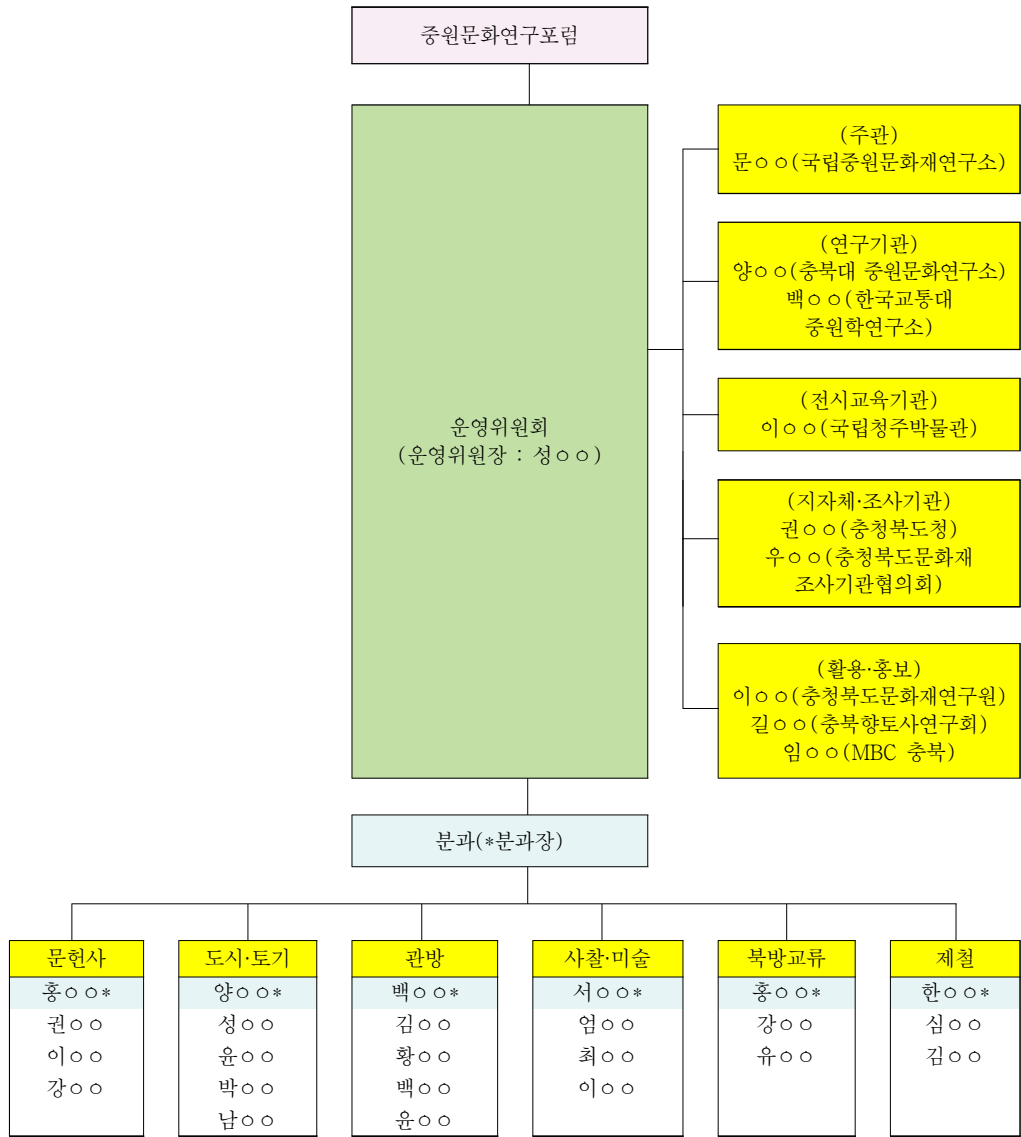
또한 중원역사문화권의 경우 2022년 2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포럼'을 출범하였으며, 연구기관, 전시교육기관, 지자체, 문화재 조사기관, 활용·홍보 등의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문헌사, 도시·토기, 관방, 사찰·미술, 북방교류, 제철의 6개 학술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중원문화연구포럼'은 중원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각 기간과의 상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8월 '중원문화권 성격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제1회 정기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처럼 중원역사문화권의 경우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에 발맞춰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중원역사문화권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원역사문화권은 예맥역사문화권과 함께 기존의 6개 역사문화권에 추가로 지정되었다. 예맥역사문화권과 함께 늦게 입법이 된 중원지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성격 역시 고대 국가 혹은 정치 집단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공간적 의미에 따라 지정되었다는 점이 예맥역사문화권과 유사하다. 역사문화권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시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 지자체의 협조가 미진한 점 등도 예맥역사문화권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중원역사문화권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늦게나

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맥역사문화권과는 차이가 있다.

중원역사문화권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고대 국가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 내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 양상을 보여 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을 한다면 예맥역사문화권 역시 예맥이라는 종족 혹은 문화 양상이 존재하였던 시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예맥역사문화권의 중심 지역인 강원도라는 공간 내에서 예맥 이전과 이후의 시간적 범위까지 함께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III-2> 중원연구포럼 조직도

IV

예맥역사문화권의 설정

1. 예맥역사문화권의 범위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의 적절성, 그리고 시공간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강원지역에 살던 집단의 종족 명칭이 문헌기록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3세기 중엽에 편찬된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이다. “예(濊)는 남으로 진한(辰韓)과 연해 있고 북으로는 고구려(高句麗)·옥저(沃沮)와 접해 있으며, 동은 대해에 닿아 있다. ... 단단대령(單單大嶺) 서쪽은 낙랑(樂浪)에 소속되었고, 대령 동쪽 7 현은 도위(都尉)를 두어 다스렸는데 (도위는) 모두 예민(濊民)으로 하였다.”라고 한다. 고구려와 옥저의 남쪽, 낙랑군의 동쪽, 진한의 북쪽 즉, 지금의 함경남도 남단에서 강원 북부에 걸친 지역을 『삼국지』에서는 ‘예’ 또는 ‘예맥’으로 불렀다(이현혜 2010).

한반도의 종족적 기원과 관련하여 예·맥·예맥의 개념과 종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크게는 ① 예맥을 하나의 종족 단위로 보는 입장과 ② 예족과 맥족을 구분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좀 더 세분하면 예는 예맥을 줄여서 부른 것, 예는 맥의 일종 또는 맥의 별종인 것, 예와 맥은 동일 종족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되는 것, 부여는 예족으로 고구려는 맥족으로 보는 것 등이 있다(김정배 1973; 박경철 2004).

『삼국지』와 『삼국사기』를 통해 보면 예나 말같은 모두 어떤 정치적 실체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언어나 습속을 공유하는 종족의 명칭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문헌에 나오는 종족의 이름과 정치체를 지칭하는 명칭은 서로 구분하여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진한은 종족의 이름이며 그 중 사로국(斯盧國)은 진한 12개 정치체 중의 한 소국의 이름이고 고구려와 같은 경우, 그 명칭은 종족명이기도 하지만 그 종족이 통합되어 초기국가로 등장한 정치체의 명칭이기도 하다. 그런데 동예나 옥저는 정치적 실체로 보기는 어렵다. 『삼국지』나 『삼국사기』에는 영동지역의 역사적 실체를 예나 말갈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종족의 이름으로 보아야지 정치체의 명칭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삼국사기』 중에도 특히 신라 관련 기사를 보면 따로 ‘예국(濊國)’, ‘맥국(貊國)’, ‘실직국(悉直國)’ 등의 독자적 정치체의 명칭이 등장한다. 이와 같은 기록의 차별화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역사적 과정으로 볼 때, 나름대로 종족집단, 혹은 그 내부에서 정치세력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과 그 결과를 구분해서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특히 전쟁기사와 같은 것이 그러할 터인데 특정한 독자 정치체가 행동한 것이 아니라 종족집단의 여러 정치체가 함께 공동작전을 펼쳤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국명이 아니라 종족명(種族名)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이성주 2010).

예맥과 관련된 논쟁은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와 국립춘천박물관이 공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 주최한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고대 강원의 대외교류』, 『문헌과 고고자료속의 고대 강원』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은 문헌상으로 예·맥·예맥의 성격이나 분포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시기에 따라 집단의 구성·분포 범위·문화적 성격 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의 주변 집단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문헌에서 다루는 대상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문헌에 나오는 예·맥·예맥의 개념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각 시기별 문헌에 따라 이들이 종족명인지 정치체명인지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뜻하는 경우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예맥’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고대 문화를 설명하기에 아직 더 정확한 명칭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역사문화정비법에서 예맥역사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새로이 용어를 찾기 보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 시공간범위와 문화적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맥역사문화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예맥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등은 그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고고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연구자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역사문화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맥역사문화권은 그 공간적 범위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 예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고고자료로 일반적으로 여(철)자(묘(凸))형 주거지를 꼽는다. 그러나 이 여(철)자형 주거지를 기준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을 설정하면 그 공간적 범위가 경기도 동부, 북부, 서울 등까지 확대된다. 여(철)자형 주거지가 한반도 중부지역에 걸쳐 폭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한반도 중부지역 대부분이 예맥의 문화권이 되는 것이다. 실제 그러한 공간을 예맥이라는 이름으로 장악하지는 않았을 터이고 마한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여(철)자형 주거지 외에 다른 고고자료로 예맥을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맥역사문화권은 정비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고대에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겠지만 현재의 행정구역인 강원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할 수 밖에 없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예맥의 역사와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고 법에 명시하여야 하나 애초에 입법시 현재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넘어서는 설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강원도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먼저 설정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유적과 유물이 예맥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 정리하는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리하면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원삼국시대의 여(철)자형 주거지, 적석총 등의 유구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의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특히 북한강 유역, 남한강 유역, 영동지역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유적의 분포가 확인된다. 다만 경기 북동부, 충북 북동부, 경북 북동부 지역까지 유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등이 필요하다.

예맥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문헌자료와 고고자료를 정리하면서 예맥역사문화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IV-1> 예맥역사문화권의 공간적 범위

2. 문헌자료

2.1 국외문헌

① 사기(史記)

- A-1 좌방왕과 장수들은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上谷으로부터 온 자들로 동쪽으로 穢貉 朝鮮과 접해 있다(『史記』 卷110, 「匈奴列傳」 第50.).
- A-2 ...북으로 烏桓·夫餘와 인접해 있고, 동으로 穢貉·朝鮮·真番의 이득을 총괄하다(『史記』 卷110, 「貨殖列傳」 第69.).

② 한서(漢書)

- B-1 8월 초, 算賦를 시행하였다. 北貉과 燕 사람들이 날새고 용맹한 기병을 보내와 漢을 도왔다(『漢書』 卷1, 「高帝紀」 第1.).
- B-2 元朔 원년...가을...東夷의 蕤君 南閭 등 28만 명이 투항하여 滄海郡을 두었다(『漢書』 卷6, 「武帝紀」 第6.).
- B-3 ...匈奴를 아직 없애지 못했는데 夫餘, 濊貊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는 큰 근심입니다...(『漢書』 卷99, 「王莽傳」 第69.).

③ 삼국지(三國志)

- C-1 봄 2월에 幽州刺史 毌丘儉이 高句驪를 쳤다. 여름 5월에 濊貊을 쳐서 모두 개트렸다. 韓의 那奚 등 수십 국이 각기 읍락[種落]을 이끌고 항복했다(『三國志』 卷4, 「魏書」4, <三少帝紀>4 正始 7年.).
- C-2 가을 7월에 樂浪郡이 통할하는 外夷인 韓·濊·貊이 각기 官屬을 이끌고 와서 朝貢했다(『三國志』 卷4, 「魏書」4, <三少帝紀>4 景元 2年.).

- C-3 그 나라에서 쓴 도장은 濊王의 도장이라 하며, 나라에 있는 옛 성의 이름은 濊城이니 대개 본시 濊貊의 땅이다. 그리고 夫餘가 그 나라 속에 들어가 왕이 되었으면서 스스로 도망 온 사람이라고 이르는 것 같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夫餘).
- C-4 高句麗는 요동의 동쪽 1천리에 있으며, 남으로 朝鮮濊貊과 접하고, 동으로 沃沮와 접하며, 북으로 夫餘와 접해 있다. 도읍은 丸都 주변이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高句麗.).
- C-5 沃沮, 東濊가 다 (고구려에) 복속했다. 또 小水貊이 있다. 句麗가 나라를 세울 때 큰 물을 의지해서 살았다. 西安平縣 북쪽에 小水가 있는데 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句麗의 별종들이 小水를 의지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小水貊이라 한다. 여기에서 좋은 활이 나오는데 소위 貊弓이 바로 이것이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高句麗.).
- C-6 王莽 초에 高句麗 군사를 내어 胡를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고구려 군사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강제로 핍박하여 보내려 하니, 모두 변방으로 도망하여 도적이 되어 약탈을 하였다. 遼西大尹 田譚이 그들을 추격하다가 살해되었다. 州郡縣에서는 모두 高句麗侯 騶에게 잘못을 돌렸다. 嚴尤가 (王莽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貊인이 법을 위반한 것이지 죄가 騶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그를 위로해 무마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지금 함부로 큰 죄를 묻게 되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렵다고 하였다. 王莽이 말을 듣지 않고 嚴尤에게 이를 치라는 조서를 내렸다. 嚴尤는 高句麗侯 騶를 유인해 내어 이를 참하였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高句麗.).
- C-7 東沃沮는 高句麗 蓋馬大山 동쪽에 있으며, 큰 바닷가에서 산다. 그 지형은 동쪽과 북쪽은 협소하고 서쪽과 남쪽은 길이가 천리나 된다. 북으로 挹婁夫餘와 접하였고 남으로 濊貊과 접하였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東沃沮.).
- C-8 漢武帝 元封 2년 朝鮮을 정벌하여 衛滿의 손자 右渠를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4군으로 만들었다. 沃沮城을 玄菟郡으로 하였으나 후에 夷貊의 침략을 받아 군을 句麗 서북쪽으로 옮겼다. 지금의 소위 玄菟故府가 이것이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東沃沮.).
- C-9 漢(光)武 6년 변방 군을 줄여 이 때문에 (동부)都尉도 없었다. 그 후부터는 다 縣의

渠帥를 縣侯로 하여 不耐華麗沃沮 등 모든 縣이 다 侯國이 되었다. 이적이 다시 서로 싸웠지만 오직 不耐濊侯만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功曹와 主簿를 두었다. 모든 조는 다 濊民이 만든 것이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東沃沮.).

- C-10 桓帝·靈帝의 치세 말년에 韓과 濊가 강성하여 군현이 제어하지 못하고 많은 인민이 韓國으로 흘러들어갔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韓.).
- C-11 建安 연간에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帶方郡으로 만들고, 公孫模·張敞 등을 파견하여 漢의 遺民을 모아 들였다. 군대를 일으켜서 韓과 濊를 정벌하자 옛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고, 이 뒤에 倭와 韓은 드디어 帶方に 복속되었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韓.).
- C-12 (대방군에서) 公孫模와 張敞 등을 파견하여 遺民을 모아들이고 군사를 일으켜 韓濊를 정벌하니 舊民이 점차 돌아왔다. 이후로 倭와 韓이 마침내 대방군에 속했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韓.).
- C-13 國에서 鐵이 생산되니 韓·濊·倭가 모두 와서 가져간다. 물건을 팔고 살 때 모두 철을 쓰니 中國에서 錢을 쓰는 것과 같다. 또한 (철을) 2郡에 공급한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弁辰.).
- C-14 濊는 남으로 辰韓과 연해 있고 북으로는 高句麗·沃沮와 접해 있으며, 동은 대해에 닿아 있다. 지금 조선의 동쪽이 다 그 땅이다. 호수는 2만이다. 옛날 箕子가 조선에 가서 여덟 가지 조목의 가르침을 만들어 이를 가르쳐 문을 닫지 않고 차도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그 뒤 사십여 대를 지나 朝鮮侯가 참람되게 왕을 칭했다. 陳勝 등이 봉기하고 천하가 진나라에 반기를 드니 燕齊趙 사람들이 난을 피하여 朝鮮으로 수만 명이 옮겨 왔다. 燕 사람 衛滿이 상투를 들고 東夷의 옷을 입고 다시 여기에 와서 왕이 되었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濊.).
- C-15 漢武帝가 朝鮮을 정벌해 멸하고 그 땅을 나누어 4郡으로 만들었다. 이로부터 胡(오랑캐)와 漢이 차츰차츰 구별되었다. (濊에는) 大君長은 없고, 漢 이래로 관직은 侯·邑君·三老가 있어서 사람들을 다스려 왔다. 그곳 노인들이 옛날부터 전하는 말에 의하면 句麗와 같은 종족이라 한다. 또 사람들의 성질을 보면, 항상 성실하고 욕심이 적고 엄치가 있어 구걸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과 법률과 풍속은 대체로

句麗와 같으나 의복은 다름이 있다. 남자나 여자는 모두 曲領을 입고, 특히 남자는 허리에 수촌 넓이의 은화(은띠)를 차서 장식을 한다. 單單大山嶺 서쪽은 樂浪에 소속되었고, 대령 동쪽 7縣은 都尉를 두어 다스렸는데 (도위는) 모두 濊民으로 하였다. 후에 都尉를 없애고 그곳 渠帥를 봉하여 侯로 삼았다. 지금의 不耐濊는 모두 그 종족이다. 漢 말에 다시 句麗에 소속되었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濊.).

- C-16 그들의 풍속은 산천을 소중하게 여긴다. 산천에는 각각 (속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 함부로 서로 출입하고 상관하지 못한다. 같은 성끼리는 혼인을 하지 못하며, 꺼리는 것이 몹시 많다. (식구가) 질병으로 죽으면 살던 집은 버리거나 헐고 다시 새 집을 짓는다. 마포를 짜고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서 입는다. 새벽에 별자리를 살펴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구슬이나 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논다. 이것을 舞天이라고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올린다. 읍락끼리 서로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벌로 살아있는 소나 말을 내놓도록 한다. 이것을 責禍라고 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도적이 적다. 길이 3丈의 긴 창을 만들어 혹 이것을 몇 사람이 함께 가지고 쓰기도 하며 보병전을 잘한다. 樂浪 檀弓이 이 땅에서 났고, 그 바다에서는 班魚皮가 난다. 땅은 기름지고 豹와 果下馬가 나는데 漢 桓帝(146~167)때 이를 바쳤다. 博物志 魏都賦에 보면, 果下馬는 높이가 3척이어서 과수나무 아래로도 타고 다닐 수가 있어서 이것을 果下馬라고 한다고 했다. 正始 6年 樂浪太守 劉茂와 帶方太守 弓遵이 (단단대령)동쪽 濊가 句麗에 복속했다 해서 군사를 일으켜 정벌했다. 不耐侯 등이 온 고을을 들어 항복했다. 正始 8년에 이들이 궁궐에 나와 공물을 바치자 다시 조서를 내려 不耐濊王을 삼았다. 이로부터 그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사시로 군에 나와 조알했다. 두 군은 군사나 세금, 부역 등을 모두 일반 백성과 똑같이 대우했다(『三國志』,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 第30 濊.).

④ 후한서(後漢書)

- D-1 光武 25년 정월 봄, 遼東 요새 밖의 貂人들이 右北平·漁陽·上谷·太原을 침범해 遼東太守 祭彤이 그들을 포위하고 항복시켰다고 하였고, 그 주석에 '貂人 濊貂國人也 貂音 陌 大人謂渠帥也'라고 기록하여 貂人이 濊貂國人이고 통치자를 渠帥라고 불렀음을 기록하고 있다(『後漢書』卷1, 「光武帝紀」第1.).

- D-2 夫餘國은 玄菟 북쪽 천리에 있다. 남으로 高句麗, 동으로 挹婁, 서로 鮮卑와 접해 있으며, 북쪽에 弱水가 있다. 지방이 2천리이며 본래 濊의 땅이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夫餘國.).
- D-3 高句麗는 요동 동쪽 1천리 되는 곳에 있다. 남쪽은 朝鮮濊貊과 접해 있고, 북쪽은 夫餘와 접해 있다. 면적이 2천리인데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아 사람들이 이를 따라서 산다. 밭이 적어서 힘을 다해 농사지어도 스스로 자급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그 풍속이 먹는 것은 절약하나 궁실을 수선하는 것은 좋아한다. 東夷들은 서로 전하기를 夫餘의 별종이라 한다. 그런 까닭에 언어나 법칙이 다 같다. ...그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하고 기운이 세다. 싸움을 잘하고 도둑질과 약탈을 좋아하는데 沃沮와 東濊가 다 복속하였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高句麗.).
- D-4 句麗는 일명 貊이라고도 한다. 별종이 있는데 小水에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小水 貊이라 한다. 좋은 활이 나는데 소위 말하는 貊弓이 이것이다. 魏氏春秋에서 말하기를 遼東郡 西安平縣 북쪽에 小水가 있는데 남으로 흘러 바다에 이른다. 句麗 별종이므로 이름을 小水 貊이라 한다. 王莽 초, 구려의 군사를 내어 흉노를 치려고 하자 그 군사들이 가지 않으려 했다. 강제로 꺾박하여 보내니, 모두 변방으로 도망하여 도적이 되어 약탈을 하였다. 遼西大尹 田譚이 그들을 추격하다가 살해되었다. 王莽이 장수 嚴尤를 보내서 이를 치게 했더니 句麗侯 騶를 피어서 변경에 들어가 목을 베어 수급을 장안으로 보내니 王莽이 크게 기뻐하고, 高句麗王의 칭호를 고쳐 下句麗侯라고 낮추었다. 이로부터 貊人들의 변방 침범이 더욱 심해졌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句麗.).
- D-5 元初 5년 (118), 다시 濊貊과 함께 玄菟를 침략하여 華麗城을 공격하였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句麗.).
- D-6 건광원년(121) 봄, 유주자사 풍환과 현도태수 요광, 요동태수 채풍 등이 군사를 이끌고 변경으로 나와 그들을 쳐서 예맥거수를 사로잡아 참수하고 병마와 재물을 획득했다...이에 광양·어양·우북평·탁군 등 속국의 군사 3천여 명의 기병으로 함께 이를 구원하도록 하였으나 맥인들은 이미 가버린 뒤였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句麗.).
- D-7 (건광원년)가을, 궁이 마한·예맥의 기병 수천기를 데리고 현도를 포위했다. 부여왕이 아들 울구태 지휘 하에 군사 2만여 명을 보내 주·군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를 격파하고 5백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句麗.).

- D-8 선비·예맥은 해마다 침략해 와서 백성들을 수천 명씩이나 잡고 약탈하는데, 돌려보내는 것은 수십에서 백 명이니 이는 귀화하려는 마음씨가 아니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句麗.).
- D-9 드디어 수성이 죽고 아들 백고가 왕위에 올랐다. 그 후 예맥이 복종하니 동쪽에는 일이 적었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句麗.).
- D-10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다. 동쪽으로 큰 바다를 끼고 북쪽은 읍루·부여와 연결되며, 남쪽은 예맥과 접하고 있다. 그 땅은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길어서 가히 1천리나 된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沃沮.).
- D-11 무제가 조선을 멸하고 옥저땅에 현도군을 두었다. 후에 예맥에게 침범 당하자 군을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겨 다시 옥저를 현으로 하고 낙랑 동부도위에 속하게 하였다. 광무제 때에 이르러 도위관을 폐지하고 그 뒤부터는 다 그 거수를 봉하여 옥저후로 하였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沃沮.).
- D-12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54국이 있다. 북쪽은 낙랑과 접해 있고, 남쪽은 왜와 접해 있다. 진한은 동쪽에 있는데 12국이 있다. 북쪽으로 예맥과 접해 있다.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역시 12국이 있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韓.).
- D-13 예는 북으로 고구려·옥저와 접해 있고, 남쪽은 진한과 접해 있다. 동으로는 큰 바다에 다다르고, 서쪽으로는 낙랑에 이르렀다. 예와 옥저와 구려는 본래 조선 땅이다. 옛날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기자는 그들에게 예의와 농사·양잠을 가르치고, 또 8조의 가르침을 제정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대문을 닫지 않으며, 여자는 정조를 지키고 믿음에 있으며 음식은 그릇에 담아 먹었다. 그 뒤 사십여 대를 지나서 조선후 준에 이르러 스스로 왕을 칭했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濊.).
- D-14 한나라 초 큰 난리가 나자 연·제·조나라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해간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연나라 사람 위만이 준을 쳐서 격파하고 스스로 조선왕이 되어 나라를 전해 그의 손자 우거에까지 이르렀다. 원삭 원년, 예왕 남려 등이 우거를 배반하고, 이십팔만 명을 데리고 요동에 와서 소속되자, 무제는 그 땅을 창해군으로 하였다가 몇 년 뒤에 없앴다. 원봉 삼년에 이르러 조선을 멸하고, 낙랑·임둔·현도·진

번의 4군을 나누어 두었다. 소제 시원 5년에 이르러 임둔·진번을 없애고 낙랑과 현도에 소속시켰다. 현도는 다시 구려로 옮겨 갔다. 단단대령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옥저와 예맥은 모두 낙랑에 소속시켰다. 후에 땅이 넓고 멀어 다시 대령 동쪽 7현을 나누어 낙랑동부도위를 설치하였다. 여기에 소속된 이후로 풍속이 차츰 박해지고 법으로 금하는 것 역시 점차 많아져서 60여 조나 되었다. 건무 6년, 도위 관직을 없애고 드디어 대령 동쪽 땅을 포기하고, 그곳의 거수를 봉하여 현후를 삼으니 매년 정초에 입조하여 하례를 했다. 이곳에는 대군장이 없고 관직은 후와 읍군·삼노가 있었다(『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滅.).

- D-15 노인들이 스스로 구려와 같은 종족이라고 하는데, 언어와 법률과 풍속이 대개 비슷하다. 사람들의 성품은 어리석고 욕심이 적다. 남녀 모두 곡령을 입었다. 그 풍속은 산천을 중히 여겨 산천마다 각각 부락의 경계가 있어 서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고 모든 일에 꺼리는 것이 많았다. 질병으로 죽으면 집을 헐어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 살았다. 삼을 키울 줄 알고, 양잠을 해서 면포를 짰다. 새벽에 별의 움직임을 보고 한 해 농사의 풍흉을 미리 예측했다. 항상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무천이라고 이름하였다. 또 호랑이에게 제사 지내고 신으로 여긴다. 음악에서 서로 침범하는 자가 있을 때는 서로 벌주는데 살아있는 소나 말로 갚으니 이것을 책화라고 하였다. 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도둑질 하는 자가 적고 보병전을 잘해서 창 하나의 길이가 세 길이나 되는데 이것을 흑 몇 사람이 함께 지니기도 했다. 낙랑(맥)궁이 그 땅에서 났다. 또 표범이 많으며 과하마도 있다. 바다에서는 반어가 나는데 이것을 잡으면 사신을 보내 다 바쳤다(『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滅.).

2.2 국내문헌

- E-1 가을 9월에 華麗와 不耐의 2縣 사람이 공모하여 騎兵을 이끌고 북쪽 경계를 침범했다. 貊國의 渠帥가 군사로서 曲河의 서쪽을 막아 패배시켰다. 王이 기뻐하여 靺國과 우호를 맺었다(『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 17年條.).
- E-2 31년, 한나라 왕망이 우리 군사를 동원하여 호를 치고자 하였다. 우리 군사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강제로 핍박하여 보내려 하니, 모두 변방으로 도망하여 법을 위반하고 약탈을 하였다. 요서대운 전담이 그들을 추격하다가 살해되었다. 한나라 주와 군에서는 우리에게 잘못을 돌렸다. 엄우가 (왕망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백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마땅히 주군으로 하여금 위무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함부로 큰 죄를 묻게 되면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됩니다. 부여의 족속 가운데 반드시 그들을 추종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흉노를 아직 없애지 못했는데 부여·예맥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는 큰 근심이라고 하였다. 왕망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엄우에게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琉璃王 31年條.).
- E-3 가을 9월에 漢과 貊人이 침략해오니 王이 나가 막다가 적병에 의해 상해를 입어 돌아가셨다(『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第2 責稽王 13年條.).
- E-4 삭주는, 가탐의 고금군국지에 고구려의 동남쪽, 예의 서쪽, 옛날 맥의 땅으로서, 대략 지금 신라 북쪽 삭주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덕왕 6년, 당 정관 11년에 우수주로 만들어 군주를 두었고, (일설에는 문무왕 13년, 당 함형 4년에 수약주를 설치하였다고도 한다) 경덕왕이 삭주로 개칭하였다. 지금의 춘주이다(『三國史記』 卷35, 「雜志」 第4 <地理> 2 朔州.).
- E-5 명주는 원래 고구려의 하서량(하슬라라고도 한다)으로서 후에 신라에 속하였다. 가탐의 고금군국지에는 지금 신라의 북부 경계에 있는 명주는 대부분이 예의 옛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전의 역사서에는 부여를 예의 땅이라고 하였는데 잘못인 듯하다. 선덕왕 때 소경을 만들고 관리를 배치하였으나, 태종왕 5년, 당 현경 3년에 하슬라 지역이 말갈과 연결되어 있나 하여 소경을 폐시하여 주를 만들고 군주를 두어 이를 지키게 하였다가 경덕왕 16년에 명주로 개칭하였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三國史記』 卷35, 「雜志」 第4 <地理> 2 溟州.).

- E-6 삼국사에서 이르기를 명주는 옛 예국인데 시골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도장을 얻어 이를 바쳤다. 또, 춘주는 옛 우수주로 옛 맥국인데 혹은 지금의 삭주를 맥국이라고도 하고, 혹은 평양성을 맥국이라고도 한다(『三國遺事』卷1, 「紀異」第1馬韓.).
- E-7 춘주는 본래 맥국으로 신라 경덕왕 6년에 우수주로 하고 군주를 두었다. 문무왕 13년 수약주라 칭하였으며, 경덕왕이 삭주로 개칭하였고 후에 광해주로 개칭하였다. 태조 23년 춘주라 하였다...(『高麗史』卷58, 「志」第12 <地理> 3 春州).
- E-8 명주는 본래 예국으로 한무제가 장수를 보내 우거왕을 치고 시군을 정할 때 임둔이라 하였다. 고구려는 하서량이라 칭하였는데 신라 선덕왕이 소경을 두었다...(『高麗史』卷58, 「志」第12 <地理> 3 東界 溟州).
- E-9 강원도는 본래 예맥의 땅인데 뒤에 고구려 소유가 되었다(『世宗實錄』, 「地理志」<江原道> 春川都護府).
- E-10 춘천은...본래 맥국의 땅인데 신라 선덕왕 6년 우수주로 하였고(즉 당 태종 정관 12년인데 문무왕 13년 수약주를 두었다고도 한다), 경덕왕이 삭주로 고쳤다(『世宗實錄』, 「地理志」<江原道> 春川都護府).
- E-11 강릉은...본래 예국의 땅인데(칠국, 예국이라고도 한다) 한나라 무제 원봉2년 장수를 보내 우거왕을 치고 사군을 정할 때 임둔이라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하서량(하슬라)이라 일컬었고, 신라 선덕왕은 소경을 두었다(『世宗實錄』, 「地理志」<江原道> 江陵大都護府).

2.3 기타

① 단양 신라적성비

[단양 신라적성비] 당시 赤城의 也余次에게 교하시기를 ... 에 옳은 일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죽게 되었으므로 이후 그의 처 三 ... 에게는 ... 이익을 허락한다. ... 법을 赤城佃舍法으로 만들었다. ... 별도의 교령에, 이후로 나라에서 야이차와 같이 ... 옳은 일을 하여 전력을 다하면 만약 그가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나이가 적건 (젊건) ... 형제이다. 이와 같이 아되는 자가 대인(大人)인가 소인(小人)인가 ...

② 광개토왕릉비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이 살아 계실 때에 敎를 내려 말하기를, ‘先祖 王들이 다만 遠近에 사는 舊民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소제를 맡게 하였는데, 나는 이들 구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略取해 온 韓人과 穢人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수호·소제하게 하라’고 하였다.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에 따라 韓과 穢의 220家를 데려다가 수묘케 하였다.

3. 고고자료

한편 예맥역사문화권에서 보이는 고고학적 양상은 초기 연구에서 설정한 중도유형 문화와 관련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중부지역의 원삼국문화는 이른바 ‘중도유형문화(中島類型文化)’로 대표된다. 박순발(1996)은 한강유역 특히 중상류지역의 원삼국시대 고고학적 문화를 중도유형문화로 부를 것을 제안하며,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 바 있다.

- 토기상 :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회(혹)색 무문토기의 공존
- 주거지 : 출입시설이 있는 ‘뎡’자형 또는 ‘뎡’자형의 존재
- 분묘 : 적석총(층석식적석묘)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회(혹)색 무문토기의 공반, 여철자형 주거지, 층석식적석묘 등의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한강유역의 원삼국문화를 중도유형문화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한성백제의 기층문화이자 예계(濊系)집단의 문화로 비정하였다. 토기상과 주거지, 묘제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한강유역의 원삼국시대는 고고학적 문화상으로 중도유형문화와 경기 서해안 및 중서부지방에 걸쳐 분포하는 문화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역사적 성격은 예계 종족과 마한으로 비정하였다. 또한 이 두 문화집단 혹은 종족집단의 상대적인 위치를 예계집단이 대체로 한강중상류지역, 마한을 한강하류 및 경기, 충청지역으로 비정하였으며, 양자의 경계는 대략 경기 북부의 연천-양평-남한강을 연결하는 선으로 파악하였다.

최근 자료의 증가로 인해 중부지역의 고고학적 양상이 다양하게 확인되면서 기존의 중도유형문화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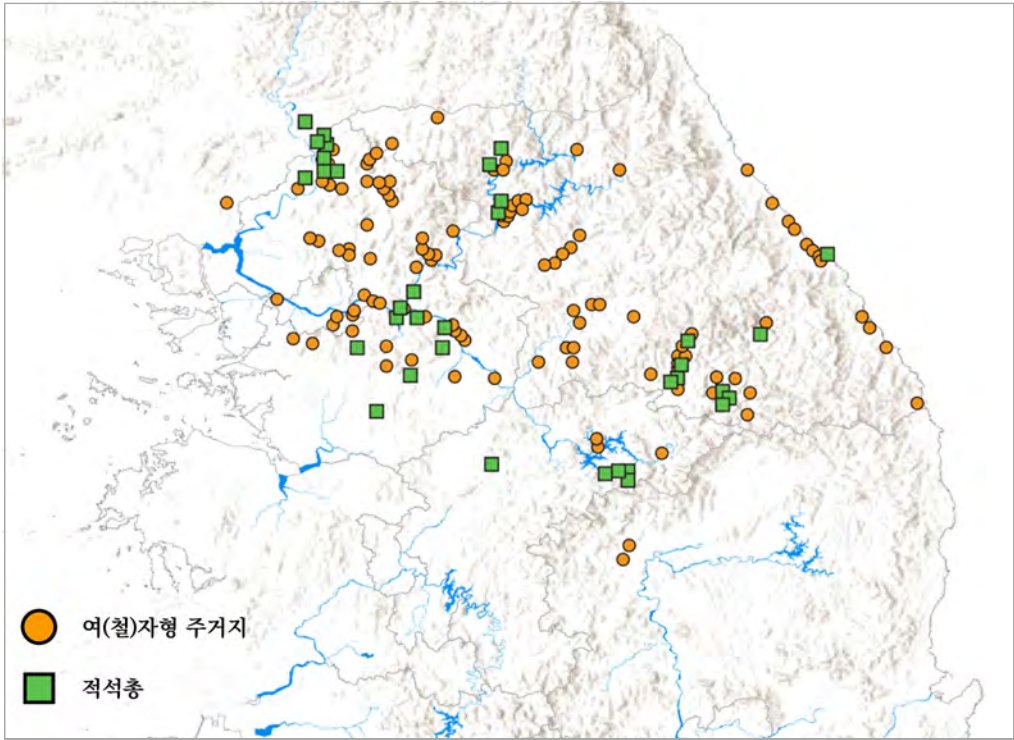
박중국(2012)은 박순발의 중도유형문화를 재검토하여 개념을 재정립하였는데, ‘중도유형문화’라는 용어를 ‘중도문화’로 대체하고, 그 의미를 수정하여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가 공반되는 여(뎡)자형 주거지의 공통분포권’으로 정리하였다. 중도

문화의 분포범위를 중부지역에서 서해안지역과 안성천유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원삼국기~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는 한예(韓濊)의 고고학적 문화로 정리하였다.

중도문화권 주거지의 노시설을 기준으로 쪽구들 주거지가 분포하는 서울·경기지역과 노지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는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쪽구들의 지역차를 한예의 생활양식이 투영된 것으로 파악하여 쪽구들이 분포하는 서울·경기지역이 한(韓), 노지 주거지가 주류인 영서·영동지역을 예(濊)로 보았다.

송만영(2011)은 환령지말 한예가 강성하는 기사가 고고학 자료와 대비하여 육각형 주거지라는 새로운 주거 유형과 토기 양식이 출현하여 일정한 분포권을 형성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파악하였다. 2세기 후반~말 무렵 강성해진 한예지역이 이러한 분포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지역은 한강 하류와 그 이남의 경기남부를 포함하여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 그리고 북한강과 남한강 중상류 지역을 포괄하는 영서 지역이며, 동일한 기층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영동 지방만이 이러한 변화에서 제외되면서 이 지역정치체의 성장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경기 북부 및 영서지역의 한예 정치체는 백제 국가의 형성 이후에도 백제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었지만, 초기 국가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처럼 예맥역사문화권의 양상은 이른바 중도유형문화의 이해와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도유형문화에서 확인되는 토기, 주거지, 분묘의 분포범위를 그대로 예맥역사문화권의 고고학적 지표로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예맥문화가 있었던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적인 양상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 토기, 주거지, 분묘의 이해를 통해 예맥역사문화권을 설정하고 그 양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IV-2> 예맥역사문화권 관련 주요 유적 분포도

3.1 여(철)자형 주거지

여(철)자형 주거지는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고고학적 양상인 ‘중도유형문화(中島類型文化)’의 요소 중 하나이다. ‘중도유형문화’란 ①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의 공반, ②여(철)자형 주거지(중도식 주거지), ③적석총 등의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광범한 지역의 문화이다(박순발 1996). 그런데 중부지역에서의 발굴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유형이 다양하게 확인되면서 중도유형문화의 개념으로는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우선 영동지역에 타날문 발(鉢)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경질무문토기 중 내만 구연호가 높은 비율로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는 토기의 기종구성과 기형에 관련된 지역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로 이어졌다(이준호 2003). 이후 발굴조사 자료의 증가를 토대로 중부지역을 임진강유역, 한강 중·하류 및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 영동지역, 안성천유역의 5개 권역으로 나누었고, 중도유형문화의 개념이 적용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김무중 2005).

이러한 지역 구분을 더 세분화하여 임진강유역, 경기 서부해안지역, 한강 하류,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 영동지역, 안성천유역의 7개 권역으로 파악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송만영 2010). 아울러 분포 외에 주거지 노시설의 차이로 지역성을 파악하여 산맥과 수계와 같은 자연환경에 종속된다고 하였고(박중국 2011), 중부지역의 영동과 영서지역을 ‘중도문화’로, 분구묘분포권을 ‘운양동문화’, 주구토광묘분포권을 ‘수청동문화’로 정의하기도 하였다(박중국 2018).

가장 최근에는 중부지역을 크게 중서부문화권과 중동부문화권으로 대별하고, 영서와 영동지역을 각각 중도유형과 가평리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박경신 2019). 특히 중서부문화권을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를 경험하면서 사회분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마한 형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조건이 축적되어 왔다고 보았으며, 중동부문화권을 비롯하여 주변을 둘러싼 문화권이 각각 상이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생활(취락) 문화가 정착한 것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문화권 형성과 전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경제적 유통망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박경신 2020a).

이렇듯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취락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원삼국시대 취락은 수원 서둔동 유적이다. 서둔동 유적에서는 여·철자형주거지, 중도식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외줄구들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춘천 중도, 횡성 둔내, 가평리, 충주댐 수몰지구 등의 발굴조사를 통해 소수의 원삼국시대 취락 유적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강릉 안인리와 하남 미사리 유적이 조사되면서 취락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제18

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계기로 원삼국시대 취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시에는 취락 고고학의 방법론과 이론 체계, 서구의 다양한 연구 방법론 및 성과 등이 소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전까지 없었던 취락의 구조·조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취락의 발전모델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취락의 수평적·수직적 분석과 이론적 체계가 구체적으로 검토되면서 분석 단위가 체계화 되었고, 공간적·사회적 분석단위와의 효율적인 조화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박경신 2019).

현재는 중동부문화권(여철자형 주거지)의 기원을 단결-크로노프카 문화권에서 찾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유은식 2006; 박경신 2019a). 두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주거지의 입지조건 및 평면형태의 공통점에서 찾고 있다. 다만 외줄구들의 기원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산재하고 있으나 북한지역의 발굴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경로는 추론에 그치고 있다. 다만 단결-크로노프카 문화권에서 주거, 토기, 외줄구들 등의 물질자료가 종합적으로 유입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송기호 2006; 유은식 2015; 강인욱 2007; 송만영 2015; 박중국 2016).

이렇게 남한지역으로 유입된 주거양식은 중부지역 전역에 걸쳐 공유되는 가운데 중부지역간의 지역성을 구분할 수 있는 속성 중 하나로 노시설의 변화양상을 꼽을 수 있다(박중국 2012; 박경신 2019a). 노지는 경기지역 및 강원지역 전역에 걸쳐 모두 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해, 외줄구들의 분포 양상은 영동지역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동지역 외에 경기지역과 영서지역에서 보이는 노시설의 변화양상은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노지에서 외줄구들로의 변화가 감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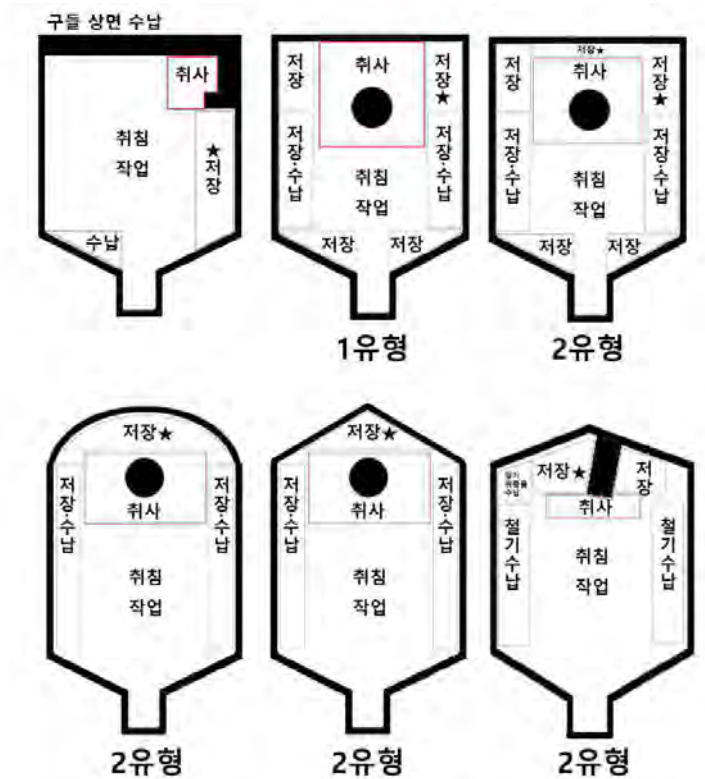
이 외줄구들의 출현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풍납토성의 발굴조사를 계기로 ‘국(國)’ 내지 ‘도성(都城)’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부터 한성백제기에 이르는 취락을 검토하여 취락 고고학의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는 연구로까지 발전하였다. 이후 취락의 편년, 주거 구조 등에 대한 분야까지 연구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특히 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 분석 모델을 응용하여 원삼국시대 취락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연구도 시작되었다. 또한 원삼국시대 단위 취락에는 다양한 시기의 주거군이 혼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유적

단위에서 주거군 단위로 편년 범위를 좀 더 세분하기 시작하면서 취락에 대한 미세한 편년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여(철)자형 주거 연구는 내부 공간활용 방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외줄구들의 발전과정을 추적한 다수의 연구 성과는 유물과 유구를 조합한 새로운 편년 방식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박경신 2019).

한편, 최근에는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취락에 대한 미세 연구를 위한 지역권 설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다양한 문화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편년 연구를 위해서는 문화권과 지역권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후 북한강, 남한강, 임진·한탄강 등 수계를 중심으로 한 원삼국시대 취락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표 IV-1> 연구자별 외줄구들의 계보 비교

출전	후벽부 ‘ㄱ’자형	측벽부 ‘ㄱ’자형	‘ ’자형
박경신(2011)	전국계		한(낙랑)계
박중국(2011)	서북한·길림지역		낙랑
이병훈(2011)	요령 및 두만강유역 초기철기문화		낙랑계
송만영(2015)	단결-크로노프카 문화유형	후벽부 ‘ㄱ’자형	측벽부 ‘ㄱ’자형
박중국(2016)	단결-크로노프카 문화유형	부여·고구려 계통	낙랑·대방 계통
박경신(2016)	동북한	서북한	?
이병훈(2016)	단결-크로노프카 문화유형	후벽부 ‘ㄱ’자형	측벽부 ‘ㄱ’자형



<그림 IV-3> 여(철)자형 주거지 내부 공간 활용 모식도(정지왕 2018)

외래기원설을 주장하는 박중국과 박경신은 측벽부 ‘ㄱ’자형과 ‘|’자형 외줄구들을 후벽부 ‘ㄱ’자형과는 다른 계통으로 보았다. 내제발전설을 주장하는 송만영과 이병훈은 단결-크로노프카 문화유형에서 후벽부 ‘ㄱ’자형 외줄구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점차 형태가 변하면서 측벽부 ‘ㄱ’자형과 ‘|’자형 외줄구들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 기원에 관한 논의는 지금도 여(철)자형 주거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결론을 지을 순 없으나 중요한 점은 여(철)자형 주거지가 다른 지역과의 관계성에서도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는 점이다.

예맥역사문화권에서 확인되는 여(철)자형 주거지는 양구, 화천, 춘천, 홍천, 인제,

횡성, 평창, 영월, 정선,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에서 폭넓게 확인되며 약 2,100여 기 이상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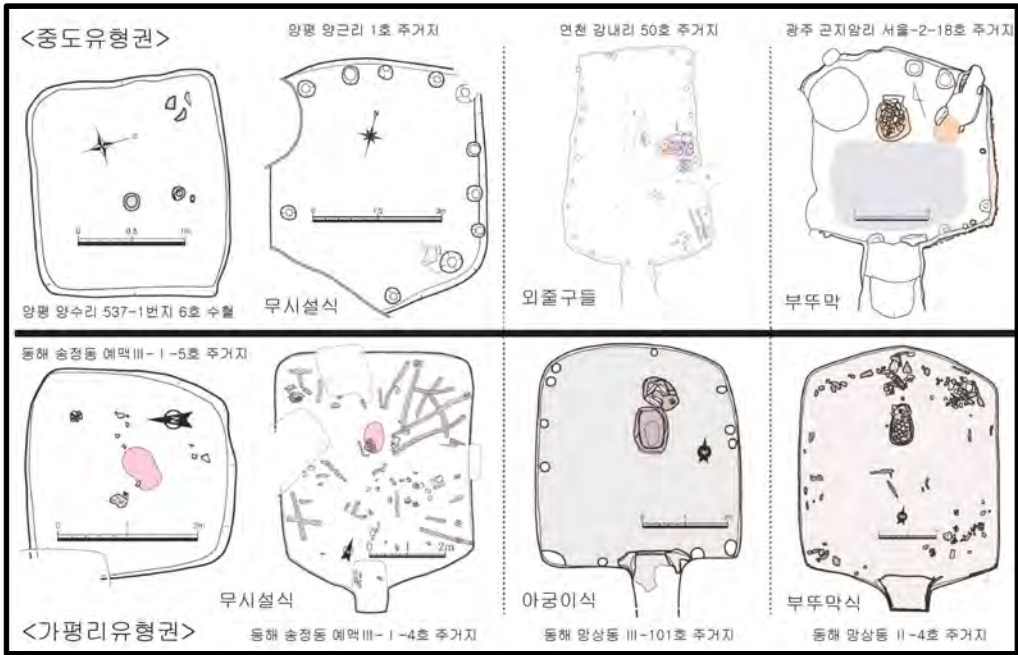
<표 IV-2> 영서지역 취락군 유구 수량(박경신 2019, 일부 수정)

연번	구분	취락명	유구 수량	
			원삼국시대	
			주거지	수혈
1	북한강 상류역 취락군	양구 고대리	24	22
		화천 위라리	56	49
		화천 거례리	12	-
		화천 원천리	117	88
		춘천 신매리	35	19
		춘천 우두동1	6	4
		춘천 우두동2	282	361
		춘천 천전리	13	6
		춘천 읍문리	111	18
		춘천 읍문리 335-4	7	-
		춘천 지내리 689-3	1	4
		춘천 중도동	376	433
		춘천 근화동	16	5
		춘천 장학리	2	-
		춘천 삼천동	3	-
인제 남북리	2	-		
소계		1,063	1,009	
2	홍천강 유역 취락군	홍천 철정리	19	6
		홍천 성산리	47	24
		홍천 송정리	13	12
		홍천 태학리	58	19
		홍천 하화계리	7	3
소계		144	64	
3	남한강 상류역 취락군	횡성 둔내	13	2
		평창 방림리	4	10
		평창 중부리	4	-
		평창 중리	4	6
		평창 천동리 220	1	-
		평창 천동리	14	9
		평창 마지리	2	-

연번	구분	취락명	유구 수량	
			원삼국시대	
			주거지	수혈
		평창 후평리	15	10
		평창 약수리	3	-
		영월 문산리	1	-
		영월 용정리 70-2	1	3
		영월 팔괴리	1	-
		영월 삼옥리	7	3
		영월 외룡리	1	-
		영월 주천리	18	7
		정선 아우라지	2	-
		정선 예미리	14	-
		정선 덕천리	1	-
	소계	106	50	
4	남한강 하류역 취락군	여주 연양리	41	30
		양평 상자포리	5	6
		양평 하자포리	5	20
		양평 양덕리	3	18
		양평 양근리	5	17
		횡성 화전리	8	3
		횡성 증금리	3	2
		횡성 읍하리	64	43
		횡성 학담리	3	-
		원주 가현동	49	15
		원주 반곡동	17	13
		원주 동화리	5	13
		원주 태장동	1	-
	소계	209	180	
	합계	1,522	1,303	

<표 IV-3> 영동지역 취락군 유구 수량(박경신 2020, 일부 수정)

연번	구분	취락명	유구 수량	
			주거지	수혈
1	영동지역	속초 청호동	15	70
		양양 가평리	3	-
		양양 동호리	(17)9	1
		양양 지경리	7	-
		강릉 강문동	14	17
		강릉 교항리	23	20
		강릉 금진리	8	3
		강릉 동덕리	1	-
		강릉 방동리	4	-
		강릉 병산동	42	-
		강릉 안인리	29	-
		강릉 초당동	25	-
		강릉 송정동	-	-
		동해 망상동	141	5
		동해 송정동	220	142
		삼척 증산동	5	1
		삼척 하맹방리	1	-
삼척 호산리	4	-		
합계			551	259



<그림 IV-4> 여(철)자형 주거지 평면형태 및 노시설 변화 양상(박경신 2020b, 일부 수정)

이처럼 강원지역에 여(철)자형 주거지는 2,100여 기 이상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을 대표하는 여(철)자형 주거지 유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춘천 중도동유적(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2020)

중도동유적은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한 지표조사(이건무·이강승·한영희·이백규 1980)를 통해 그 존재가 알려졌고, 1980년 이래 5차례에 걸친 학술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중 원삼국~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1980년과 1982년의 조사에서 확인된 2동의 주거지이다. 1981년에는 중도 적석층이 조사되었다(박한설·최복규·노혁진·최은주 1982).

2010~2011년에 걸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고(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주거지 36동을 비롯하여 총 69기의 유구가 확인되면서 대략적인 취락의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시간적 위치가 재검토되었고(박경신 2012; 박중국 2017), 이와 함께 취락구조에 대한 접근(박경신 2012)도 시도되었다.

가장 최근 레고랜드 건설의 일환으로 2013~2017년에 걸쳐 7개 기관이 하중도의 거의 전면을 조사한 결과, 총 길이 1km가 넘는 대규모 환호취락이 확인되었고, 원삼국~삼국시대에 해당하는 149동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총 772기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표 IV-4> 춘천 중도동유적 원삼국~삼국시대 유구현황(춘천 중도동연합발굴조사단 2020)

조사 기관	구역	환호	구	주거	지상	주혈	수혈	소성	경작	매납	분묘	기타	계
한강	A1			1									1
	A3			6			4		1	4			15
	A4	○	3	34	15	5	118	36	1	33	1		246
	A5	○	14	47			75	46	2	19	1		204
한백	B3	○		2				7			1		10
	B4	○		6				16					22
	B5	○	4	1				1		3			9
예맥	C1										3		3
	C2										1		1
고려	D4	○	1	33	3		76	5		1			119
강원	F		1				36		2	1			40
예맥	G1		1	9			15	4		1			30
강원	G2			4	3		22		1	8			38
국토	G3			6			10	6	3	4			29
한강*	4대강B	○		24			8			2		1	35
강고*	4대강C			12			36	1	3	11		1	64
중도*	적석총										1		1
계		1	24	185	21	5	400	122	13	87	8	2	868

*는 레고랜드 건설로 인한 조사 이전시기에 해당함

보고서에서는 경질무문토기의 변화상을 기준으로 크게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오각형 평면에 수혈식 노지가 결합된 주거만 확인되고 유물상은 극히 빈약한 편이나 A1-1호 주거지와 G2-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소형의 내만옹의 경우 인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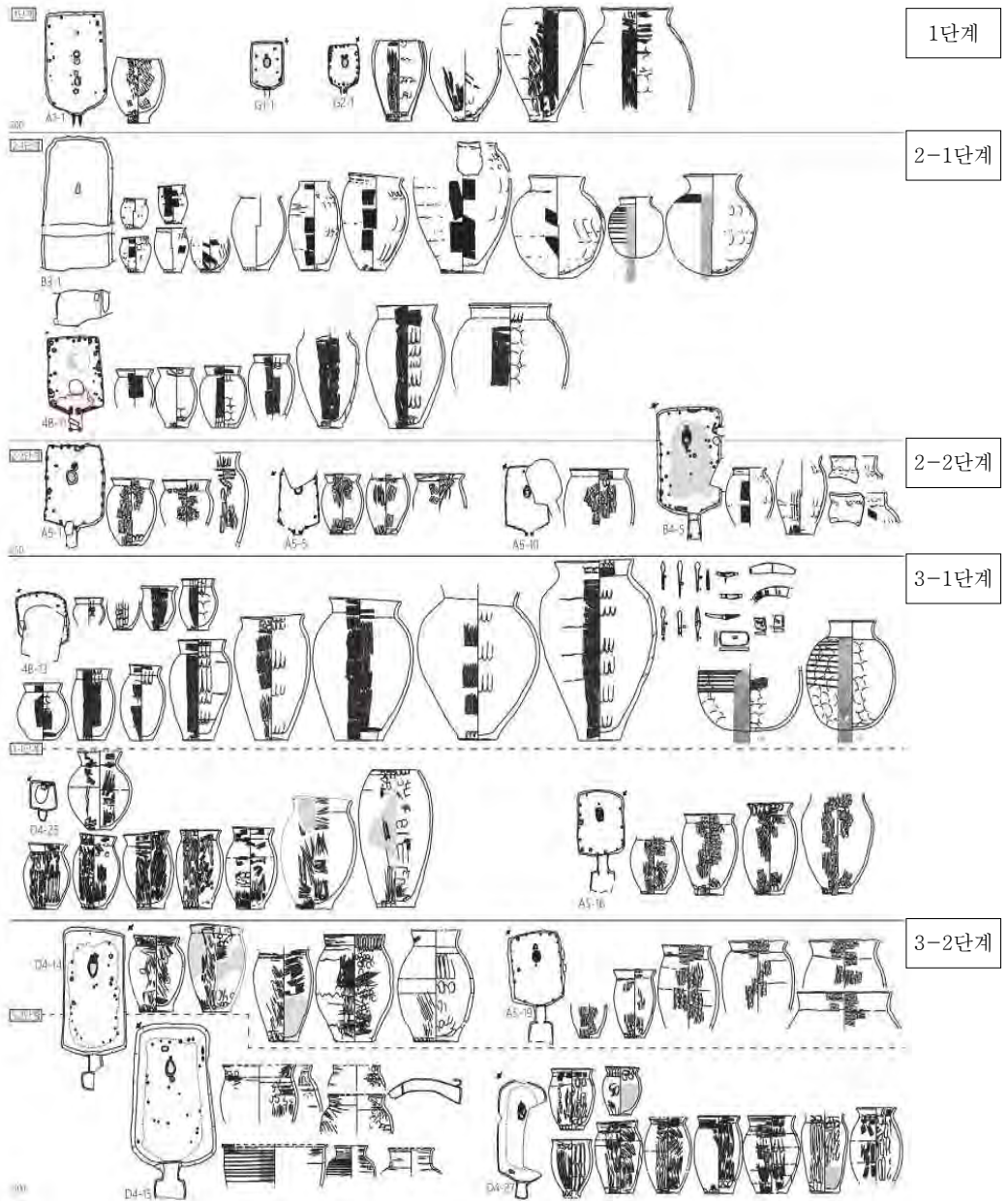
근화동유적이나 우두동유적에서 흔히 보이는 기형으로 탄소연대가 모두 2세기대로 측정되었다고 한다. 해당 주거지는 3동 뿐이고 모두 하중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G2 구역의 경작유구에서 측정된 탄소연대는 2세기가 중심이어서 경작지와 관련된 취락으로 이해하고 있다.

2단계는 주거유형은 동일하지만 소형의 내만옹이 소멸된 단계, 2-2단계는 점토떡식 노지와 중도식 노지가 모두 확인되며 탄소연대는 대체로 2~3세기 대로 측정되었다. A5-11호 주거지를 비롯하여 경작지를 파괴하면서 취락이 조성되는 양상이어서 취락배치의 획기로 보면서 3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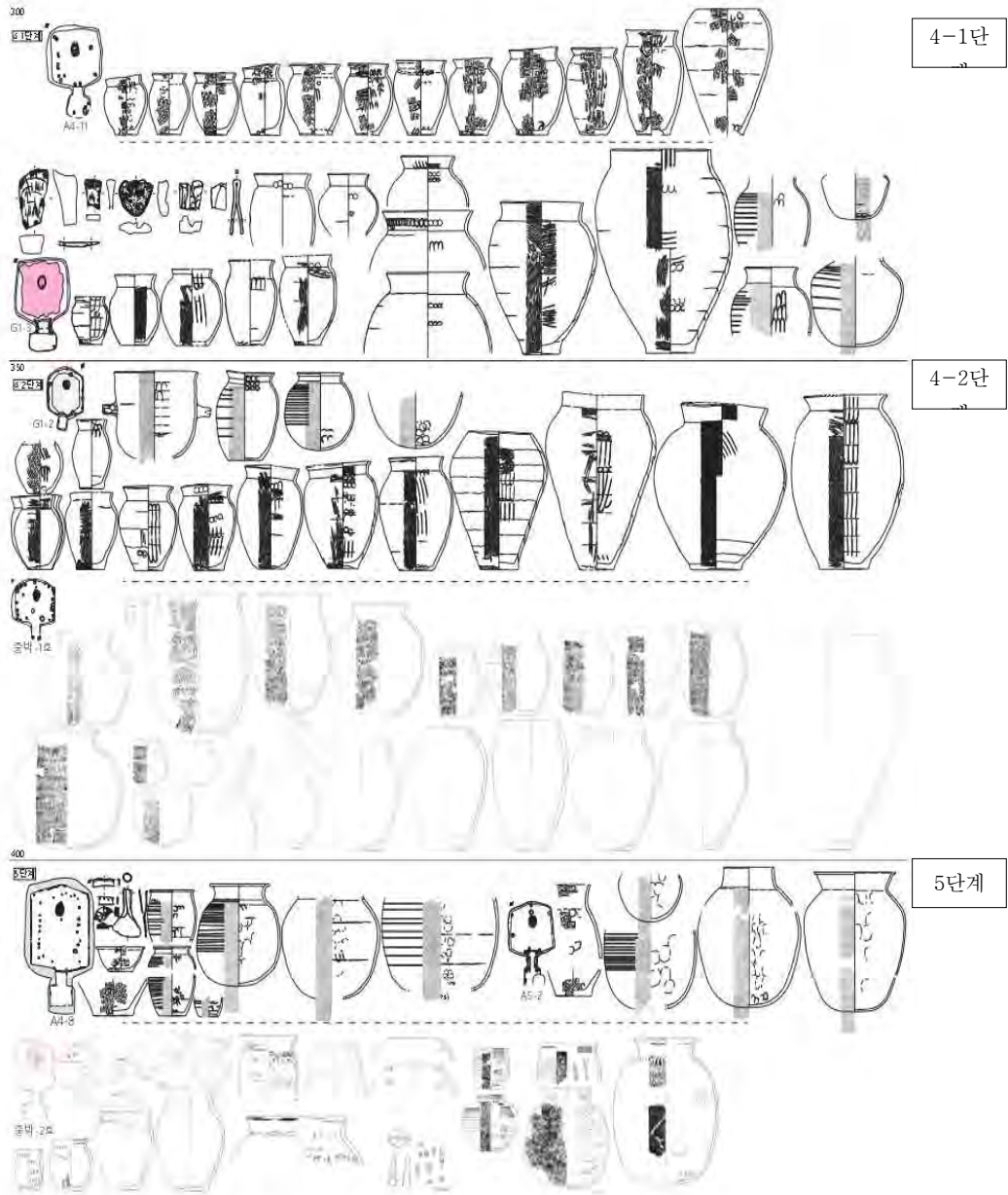
3단계는 후벽이 둥근 형태가 주류이고 오각형이 일부 잔존한 단계이다. 노시설은 중도식 노지 일색이고 환호가 처음으로 조성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4단계는 4-1단계와 4-2단계로 구분하였는데 4-1단계는 1차 환호가 매몰된 뒤 2차 환호가 재굴착된 것을 기점으로 하고 한성기 백제 단경호 등이 출현하며 4세기 전반대로 보고 있다. 4-2단계는 정연한 정육각형 주거지 일색으로 주거규모가 유사하게 규격화되는 시기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비정하고 있다.

5단계는 환호가 매몰되고 A4구역을 중심으로 지상식 건물군이 집중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주거지는 정연한 정육각형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슷한 규모로 규격화된다. 5세기 전반으로 비정된다. 여(철)자형 주거지를 비롯해 환호, 경작지 등 당시 사람들의 주거와 생활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 예맥의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철기류가 소량 출토되었으며, 잔편만 남아 기종을 파악할 수 없다. 수혈의 평면 형태는 대체로 원형계 및 방형계이며, 주거지 주변에 산재한다. 내부에서 경질무문토기 호, 타날문 단경호와 같은 생활용기가 수습되었다. 출토된 유물 및 주거지와 의 거리 등 상관관계로 보아 주거지의 부속시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IV-6> 춘천 중도동유적 편년도(일부 수정, 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2020)



<그림 IV-6> 춘천 중도동유적 편년도(일부 수정, 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2020)(계속)



<그림 IV-7> A구역 원삼국시대 유구 전경(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2020)



<그림 IV-8> A구역 원삼국시대 유구 조사 사진(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2020)

■ 동해 망상동유적(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동해 망상동유적Ⅱ는 철기시대 주거지 28기·수혈 2기, 삼국시대 주거지와 수혈 각 2기, 단야공방지 등이 확인되었다. 철기시대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대부분 ‘凸’자형으로 내부시설로는 점토띠식 노지를 주로 시설한 것이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각종 철기 등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28기의 주거지 가운데 노지가 확인된 경우는 모두 19기이다. 노지는 대부분 주거지의 중심에서 후벽으로 치우쳐 설치되었으며, 무시설식(1호)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점토띠식 노지와 점토띠+아궁이식(11·21호) 및 점토띠+부뚜막식 노지(4호)가 조사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내 보온, 취사 및 조명시설로 활용되었으며, 주거지의 구조와 주거 공간 활용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내부시설이다. 또한 점토띠가 설치된 대부분의 노지에서는 후벽으로 치우쳐 노지와 거의 맞닿아 주공(직경 10~15cm)이 확인되는데 취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점토띠식 노지는 모두 15기가 확인되었고, 노지 바닥에 설치된 재료의 차이에 따라 점토식(2·3·5·7·8·13·16·18·20·23·24·25호)과 직경 15cm 내외의 천석을 깔은 부석식(9·26·27호)으로 구분된다. 노지 바닥에 천석을 깔은 후 점토다짐을 하면 점토다짐만을 설치한 노지보다 잔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점토띠식 노지는 주거지 중심에서 후벽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대부분 주거지 바닥(점토다짐)에 점토띠를 돌리고 내부를 단단하게 점토다짐(부석식-천석을 깔 후 점토다짐)을 하였다. 예외로 2호 주거지의 경우 바닥을 굴착한 후 점토를 채우고 노지를 만들었다.

점토띠+아궁이식 노지는 점토띠식 노지와 비교해서 조사된 수는 적지만 점토띠식 노지의 개량형으로 볼 수 있다. 점토띠가 설치된 부분은 점토띠식 노지와 동일한 축조 형태를 보인다. 아궁이는 50×20×20cm 내외의 천석 2매를 나란히 낮게 벽을 세우고, 그 위에 40×40×10cm 크기의 판석을 덮개돌로 사용하였으며, 석제 주변으로 점토를 두텁게 발랐다. 점토띠+아궁이식 노지는 주변으로 망상동 36-2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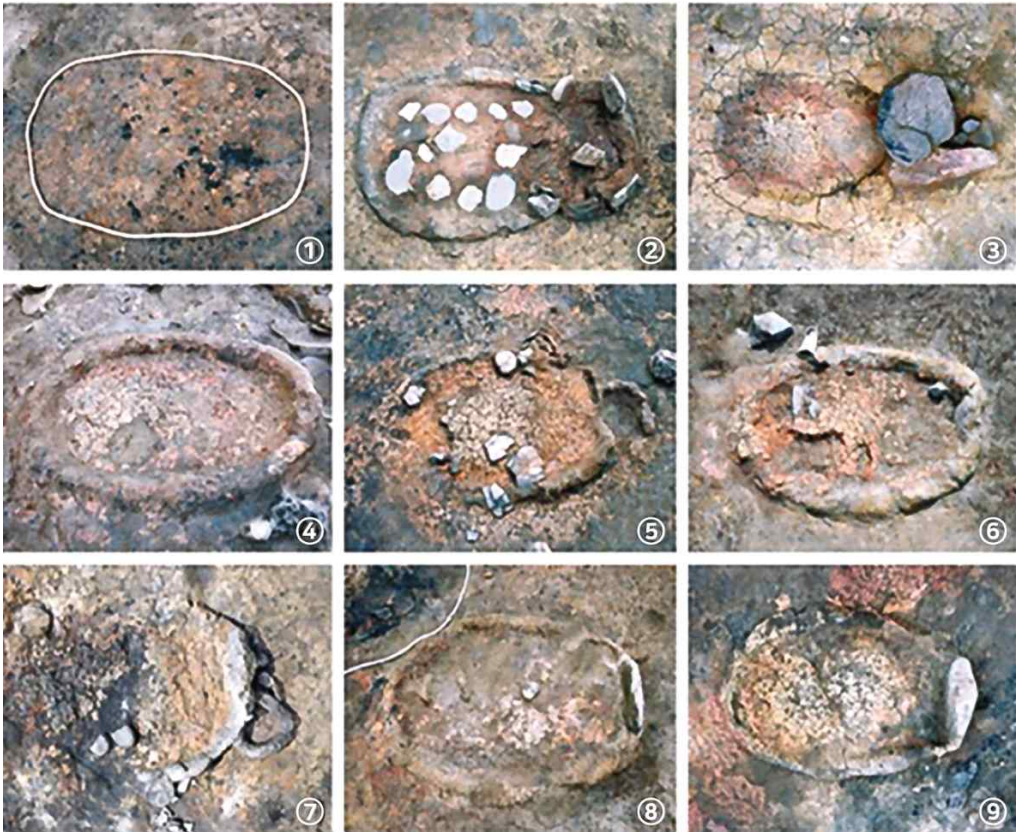
안인리유적, 횡성 둔내유적에서도 조사되었다.

점토띠+부뚜막식 노지는 영동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되는 형태의 노지이다. 점토띠가 설치된 부분은 점토띠식(부석식) 노지와 동일한 축조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부뚜막부분은 상부 구조가 무너져서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내부에는 토기받침으로 사용한 역삼각형태의 석제지각(12×12×18cm)이 확인되었다. 부뚜막축조는 천석과 활석을 이용하여 벽을 세우고 주변으로 점토를 두텁게 발라 만들었다.

점토띠+부뚜막식 노지는 점토띠+아궁이식 노지와 더불어 점토띠식 노지의 개량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북한강유역의 경우 점토띠식 노지→점토띠식 노지와 부뚜막시설(쪽구들)이 더불어 주거지에 채용→부뚜막시설(쪽구들)로 노지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영동지역의 여(철)자형 주거지에서 부뚜막시설(쪽구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동지역의 경우 점토띠식→점토띠+부뚜막식·점토띠+아궁이식으로 노지가 변화하는 모습이 간취되지만, 부뚜막시설(쪽구들)로 발전하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점토띠+부뚜막식 노지가 부뚜막시설(쪽구들)의 기능 중 토기를 도치할 수 있는 장점을 채용하여 점토띠식 노지와 접목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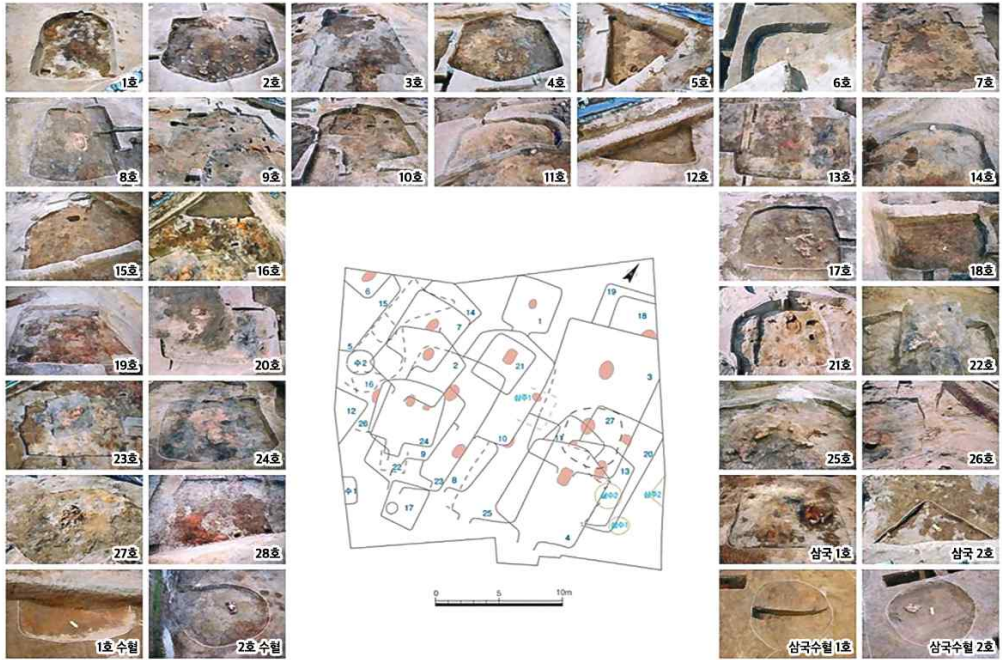
출토유물로는 중도식토기, 타날문토기, 각종 철기 등이 있다. 중도식토기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장신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타날문토기는 영동지역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과 외부(영남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대별된다. 타날문토기 생산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

노지형태	무시설식	점토띠식 노지	점토띠+아궁이식	점토띠+부뚜막식	계
기수	1	15	2	1	19



① 무시설식(1호), ② 점토띠 + 부뚜막식(4호), ③ 점토띠 + 아궁이식(21호),
④~⑨ 점토띠식(2·3·8·20·23·24호)

<그림 IV-9> 동해 망상동유적Ⅱ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노지 양상(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그림 IV-10> 동해 망상동유적 중도식 주거지 중복관계(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그림 IV-11> 동해 망상동유적 원삼국시대 주거지 항공사진(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그림 IV-12> 동해 망상동유적 출토 토기류 ①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그림 IV-13> 동해 망상동유적 출토 토기류 ②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3.2 중도식토기⁴⁾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유물 연구는 중도식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낙랑계토기 등 토기 기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유물 연구의 가장 큰 전환점은 대성리 및 운북동 유적의 조사 성과가 공개된 이후이다. 먼저 대성리 유적에서는 기존에 확인되지 않던 원삼국시대 초현기의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전국계 토기 및 철기, 철경동축, 화분형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초현기의 유물 구성이 전국계와 깊게 관련되어 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정인성은 대성리 유적 출토 유물들을 근거로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상한이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정인성 2009). 그런데 김일규는 대성리 출토 유물과 영남지역 철기를 교차 편년하여 연대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였다(김일규 2007). 이 연구는 한성백제기의 편년체계까지 대폭 하향 조정하게 만든 촉매제가 되었지만 자료의 정합성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다수의 연구자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다음으로 운북동 유적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중국계 유물이 공반 되어 원삼국시대 초현기 양상이 보다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낙랑토기와 관련이 없는 대형 타날문옹이 발견되어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류 및 교역을 넘어 이주 문제로까지 논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에 대한 연구 주제는 계통, 편년, 등장 시점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먼저 중도식무문토기의 계통에 대해서는 중국 동북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점토대토기가 제도기술상의 발전을 통하여 발생했다는 견해,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가 이식되었다는 견해, 외반구연 전통은 중국 동북지역, 내만구연 전통은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로 대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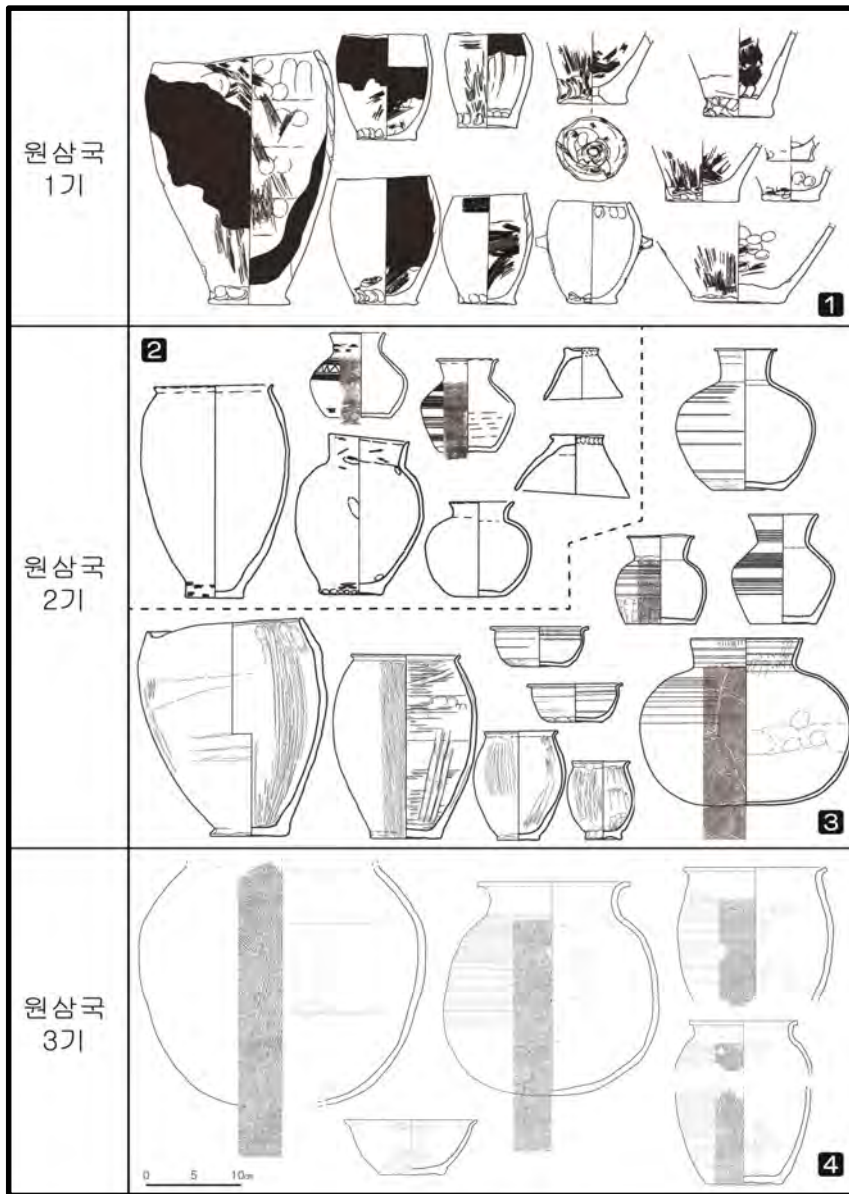
중도식무문토기의 등장 시기에 대해서는 낙랑군 설치 이전에 이미 등장하였다는

4) 본 항은 기존 연구에서 정리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였다(김준규 2013; 박정신 2019).

견해, 점토대토기 문화의 지속기간이 길게 이어져 1세기 후반에야 등장했으며, 가장 이른 단계의 중도식무문토기가 승문 및 격자문 타날 단경호와 공반되고 있어 그 상한을 역시 2세기 중엽을 상회할 수 없고,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를 토대로 가장 빠른 와수리 26호 주거지와 가평리 2호 주거지의 연대를 1세기대로 잠정하는 견해, 중도식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의 분석 결과가 BC 1세기부터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 점에서 상한을 기존의 낙랑군 설치시기로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박경신 2019).

중도식무문토기의 하한에 대해서 영동지역은 4세기 후엽 또는 5세기 전반, 영서지역은 4세기 이후 또는 5세기까지도 중도식무문토기가 제작, 사용되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풍납토성에서도 확인되는데 미래마을 나-18호, 마-2호 주거지에서는 한성백제양식 토기와 중도식무문토기가 공반된다. 따라서 중도식무문토기가 한성백제 기종의 출현과 동시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견해는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박순발은 BC 100년에서 기원전후까지를 중도식무문토기만 출토되는 ‘경질 무문토기 단순기’로 설정하였다(박순발 1995). 그 구체적인 사례로 미사리 고려대-20, 22호 주거지, 강문동 1호 주거지, 하천리 F-1호 주거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편년 연구를 통해 위 주거지들의 연대가 원삼국 III기에 해당됨이 밝혀졌다. 현재는 생산체제 및 사회변혁의 단계를 감안할 때 타날문토기와 중도식무문토기가 동시기에 등장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주로 지적된다.



① 홍천 칠정리 A-5호 주거지 ② 강릉 안인리 2호 주거지 ③ 홍천 태학리 2호 주거지
④ 춘천 중도동 A4구역 8호 주거지

<그림 IV-14> 시기별 토기 기종(S=1/8) (박경신b 2020 참고 및 일부 수정)

3.3 적석총

예맥역사문화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적석총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여(철)자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묘제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영동지역에서는 제대로 조사된 묘제가 한 기도 없다. 오히려 다른 지역처럼 무덤을 만들지 않는 것을 예맥의 특징으로 꼽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예맥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그나마 영서지역에는 적석총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석총 역시 예맥 문화의 범위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강 하류역과 임정강유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맥만의 문화로 설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원삼국시대의 강원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적석총은 예맥과 관련되는 유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적석총 문제는 그 실체와 개념 양측면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의문이 제기되는 과제의 하나이다. 한강수계의 ‘적석총’이 그 실체로 지목되어 왔지만, 반론과 이견 또한 만만치않은 것이 사실이다. 용어와 개념에 대한 이견도 극명하다. 분묘가 문화상을 대표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가부 논란의 중심에 놓인 현상은 중도문화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의 원인은 적석총의 분포와 구조에 대한 부족한 정보에 기인하는 바 크다. 지표조사로 알려진 유적의 진위문제는 유적의 분포권과 밀도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고 있다. 발굴조사된 유적이 적을 뿐 아니라 발굴되었더라도 미완에 그치거나 파괴가 심하여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구조를 오해한 연구로 인해 1차 자료의 기반이 그리 튼튼하지 않은 실정이다(정치영 2020).

적석총은 사구 위에 축조되어 높다란 분구 경관을 연출한 것은 분명하다. 정선 여량리 적석총은 고분 상면 전체에 빈틈없이 매장주체부를 연결하여 조성되었다. 석축 묘곽의 벽에 잇대어 확장해나간 양상을 띠는데 외벽에 기댄 지지석이 연결된 묘곽 내부에 묻히게 된 것을 보면 매장은 시차를 두고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수십 명이

문힐 수 있는 거대 무덤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마을에 정주한 집단의 공동묘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석총은 묘곽을 연접하여 다수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의 적석총이다. 이러한 점에서 ‘묘곽연접적석총’으로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정치영 2019).

중부 동·북부지역 적석총(적석분구묘)의 구조형식에 대한 논의는 서울 석촌동 적석총을 포함한 남한지역 전체 무덤 안에서 분류가 이루어졌고,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표 IV-5>과 같다. 매장시설이 불분명한 것이 많아 대체로 분구 외형에 따라 무기단, 기단, 계단식으로 분류되었는데 중부 동·북부 지역만을 따로 떼어 보면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 한정된 계단식은 없고 무기단과 기단식만이 존재한다. 강현숙의 경우 기단식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상기한 분류는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세부적으로는 묘곽의 수, 분의 연접, 부가 시설, 석재 종류 등 연구자마다 기준을 달리하지만 주로 묘곽 수에 따라 단곽식, 양곽식, 다곽식으로 세부 형식이 분류되어 왔다. 아울러 기단식의 경우 서울 석촌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석재 종류에 착안하여 천석 기단(방단)식이란 분류안도 있으며, 계단의 유무가 강조된다. 세부 형식에 따라 약간의 견해차가 있지만 중동·북부지역 적석분구묘는 무기단, 기단식의 고구려 적석총 묘·장제 개념이 투영된 형식 분류체계이고, 이를 통해 남한지역 적석분구묘의 흐름과 성격이 다루어져 왔다(김진영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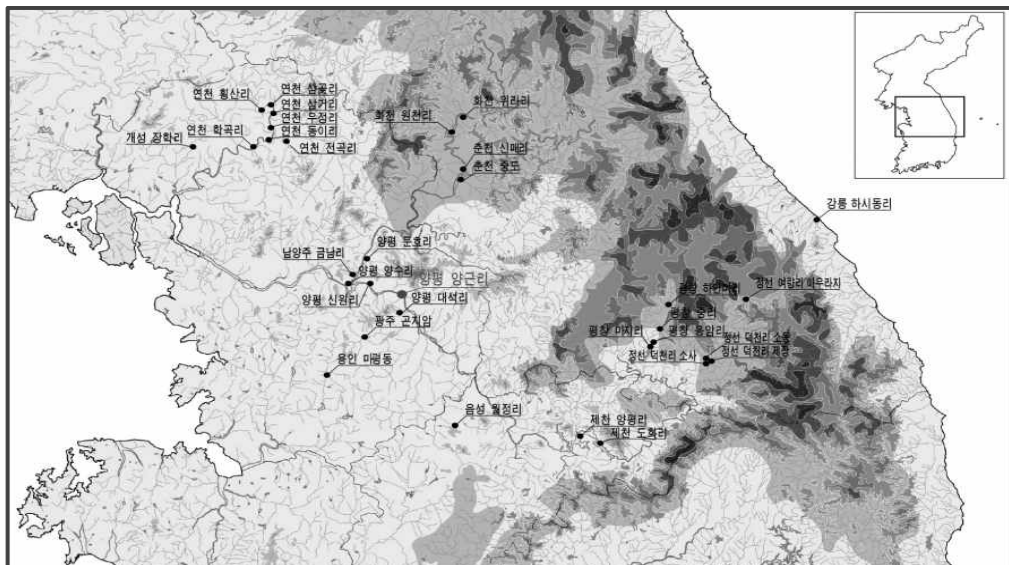


① 화천 위라리(심재연 2003) ② 화천 원천리·서오지리(정치영 외 2018) ③ 춘천 신매리(심재연 2003) ④ 춘천 중도동(박한설·최복규 1982) ⑤ 평창 응암리(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⑥ 정선 아우라지(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19)

<그림 IV-15> 강원지역 적석총

<표 IV-5> 중부지방 적석총 형식 분류 제 견해(김진영 2022, 수정)

	강 현 숙(2005)	김 성 태(2002)	이 동 희(2008)	임 영 진(2005)	최 진 석(2008)
중부 동 • 북부	무기단단독분 제천 도화리 양평 문호리	무기단단곽식 제천 도화리 춘천 중도	변형 무기단식(I) 제천 도화리 제천 양평리 춘천 중도	말갈식 제천 도화리 제천 양평리 춘천중도	무기단다곽식 제천 도화리 제천 양평리 연천 학곡리 춘천 중도
	무기단다곽식 연천 학곡리	무기단다곽식 연천 학곡리 제천 양평리			
	무기단연접분 연천 삼곶리 춘천 중도	기단양곽식 연천 삼곶리	천석 기단식(II) 연천 삼곶리 양평 문호리	고구려식 방형제단부가 방단천석 석곽 연천 삼곶리	기단양곽식 연천 삼곶리 양평 문호리
서울 석촌동	계단식	방단계단식	할석 기단식(III)	고구려식 방형제단부가 계단할석 석곽	계단단곽식
			내점토 외석축 기단식(IV)	백제식 점토층전식	
			종말기식(V)	백제식 분구사토식	



<그림 IV-16> 한강 및 임진강 유역 적석총 분포(정치영 2019)

중동·북부지역 적석분구묘는 타원대형 연축곽식과 장방대형 성토보축식으로 분류된다. 이중 타원대형 연축곽식은 기존 무기단식으로 분류되어온 무덤과 같은 것인데 서두에서 언급하였듯 이들 무덤의 계통에 대한 논의는 크게 고구려계, 예계, 백제계 무덤으로 인식하려는 견해가 대립하여왔다.

백제계로 보는 견해는 한성기 백제 왕도의 핵심 묘역인 서울 석촌동 고분군 일대에 이미 축조되었던 무기단식 적석총의 영향을 받아 중동·북부의 현지 세력이 축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보고기록에 따르면 석촌동 일대에 돌과 관련된 많은 무덤이 존재하였다지만 무기단식의 적석총이 축조되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사방연접분식의 방단형 적석분구묘만이 추가로 확인되고, 그 하층은 목관(곽)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형상 유사한 증석식분구묘와의 관련성도 제기하지만 3세기 전반대의 연축곽식 적석분구묘와 구조도 다르고 축조 시기도 후행하는 것이다.

고구려계로 보는 견해는 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동·북부지역 적석분구묘와 고구려 무기단식 적석총이 외형상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로 동일시하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기록과 관련시켜 고구려 유이민이 축조한 고구려계 무덤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양 지역의 무기단식과 연축곽식 무덤은 입지와 분포를 비롯하여 매장부의 구조와 위치, 장법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등 묘·장제적으로 서로 전혀 다른 것이다.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기단, 연접묘, 제단 설치 등이 성립되지 않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중동·북지역 적석분구묘의 묘·장제의 명확한 이해 없이 고구려 무덤의 틀에서 무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생각되는 것으로 고구려 계통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계 무덤으로 보는 견해는 박순발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는 강변의 자연사구에 입지하고 복수의 매장시설에 얹게 적석한 무덤을 고구려 무기단식 적석총과는 다른 증석식적석묘로 명명하고, 이 무덤이 여(철)자형 주거지와 경질무문토기 등을 표지하는 중도유형문화권에 분포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자주 등장하는 예(말갈)의 묘제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다음의 문제로 학계의 비판적 견해

가 있었다. 우선 중도유형 물질문화의 분포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반면, 적석총(좁은 식적석묘)은 임진강과 북한강, 남한강유역에 국한되고, 예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동해안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과 경계에 있는 적석총(좁은 식적석묘)을 예계 집단으로 특정할 만큼 종족적 구분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무덤이 예계 집단만을 대표하는 보편적 묘제인가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김진영 2022).

다음으로 최근에 조사되거나 보고된 2기의 적석총 유적을 살펴봄으로서 예맥역사문화권의 묘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화천 원천리유적(정치영 외 2018)

화천 원천리 서오지리적석총은 2기의 단위 적석묘가 연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아 물에 잠겨 있는 남서쪽으로 이어지고 있어 적석총의 연접 단위는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동분과 서분의 하부가 물에 잠겨 있어 전모는 알 수 없으나, 수면에 드러나 있는 부분의 외형을 측량한 결과,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났다.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외곽의 대형 석재와 토사의 유실을 감안하면 양쪽 모두 본래 방형 내지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면 위로 드러난 동분에서부터 서분까지의 총 길이는 약 42.5m인데, 중간에 폭 4m의 저평지대가 있어 두 분봉은 현저히 구분된다. 고분 상부는 이 중간지대의 지면과 1~1.5m 정도의 고도차를 보이고 있다.

화천 원천리 서오지리적석총은 70여 년 전 기록에서만 확인되던 북한강유역 적석총의 실물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특히 위라리적석총과 더불어 화천지역에서 실체가 확인된 두 번째 적석총이며, 북한강 상류의 중도 적석총, 신매리 적석총 등 현존하는 5기 중 하나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적석총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구조상으로는 동분과 서분이 적석 분구 위에 4m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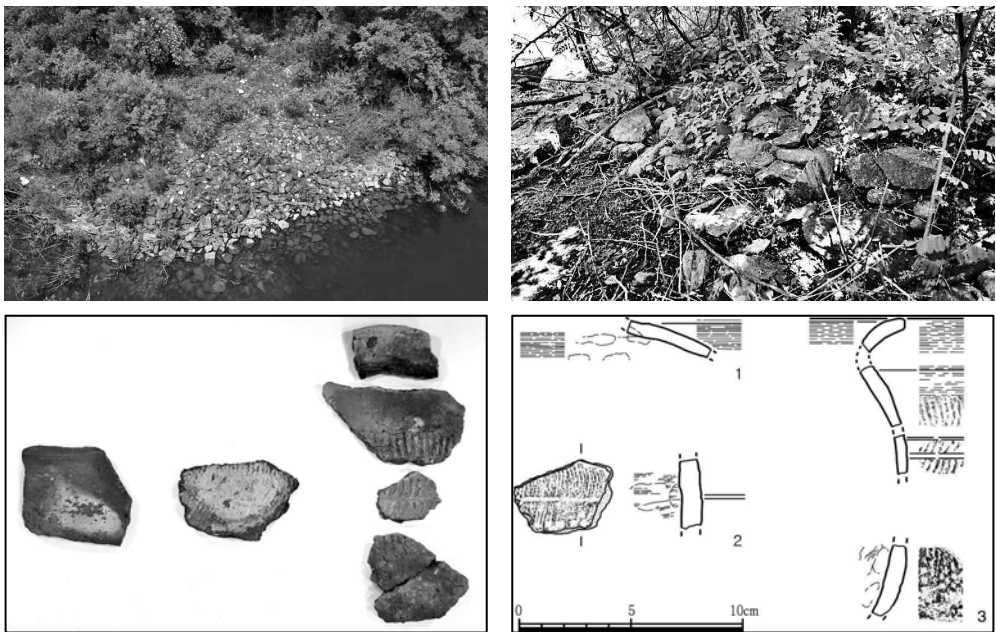
는 점에서, 연접분이거나 하나의 분구 위에 복수의 분봉과 매장부를 갖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적석총은 중·대형 할석과 강돌을 혼용하여 축조된 것인데, 대형 할석과 판석으로 기단을 축조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강돌을 쌓고 대형 할석과 판석으로 기단을 축조한 것은 임진강유역의 개성 장학리 적석총이 알려져 있는데, 양평 문호리적석총과 연천 삼꽃리적석총도 기단식 적석총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연천 동이리적석총과 연천 우정리적석총에서도 치석한 대형 현무암이 열상으로 배치된 양상이 확인되어, 할석으로 기단을 축조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석렬이 기단을 의도한 것이라기보다 축조 공정상의 기법으로 이해될 여지도 열려 있다. 다만, 원천리 서오지리적석총은 동분과 서분은 모두 분봉이 주위와 뚜렷한 단차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대형 할석과 판석이 분봉의 외연에 열상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여타의 한강유역 무기단식 적석총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원천리에서 북쪽으로 3km 거리에 위치한 위라리적석총에서도 대형 판석이 확인되지만 강돌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할석은 소수만 노출되어 있어 원천리 서오지리적석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 적석총 역시 지표조사의 육안 관찰에 따른 내용이므로 정확한 양상은 발굴조사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분구 상부에서 매장주체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는 점이다. 특히 서분 상부에는 대형 석재가 ‘ㄷ’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에 연결되는 소형 석재를 포함한 평면은 방형을 이루고 있어 매장주체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분의 상면 남쪽과 중심부 북쪽의 함몰지점이 매장주체부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IV-17> 화천 원천리 서오지리적석층 전경(정치영 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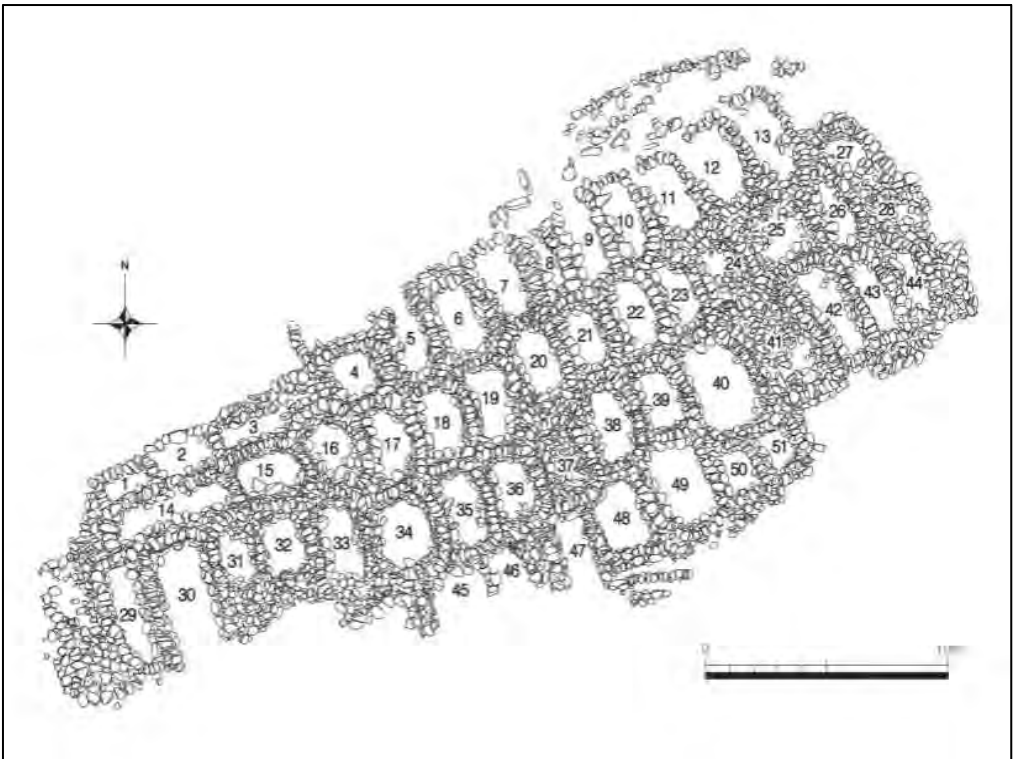


<그림 IV-18> 서오지리적석층 동분 적석(상), 동분 수습 유물(하)(정치영 외 218)

▣ 정선 아우라지유적

2016년 실시된 정선 아우라지 유적 발굴조사(43,000㎡-Ⅱ~Ⅳ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 주거지 1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45기, 고인돌 8기, 주구묘 3기, 수혈유구 5기, 철기시대 주거지 1기, 삼국(신라)시대 주거지 12기, 적석유구(집단 적석묘) 1기, 수혈유구 1기,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8기,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3기, 미상유구 2기 등 총 90기의 유구와 1,427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아우라지 유적에서 확인된 적석총은 지금까지 강원지역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형태의 유구이다. 아우라지 유적에서 확인되기 이전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유구가 보고된 예는 연천 학곡리 적석총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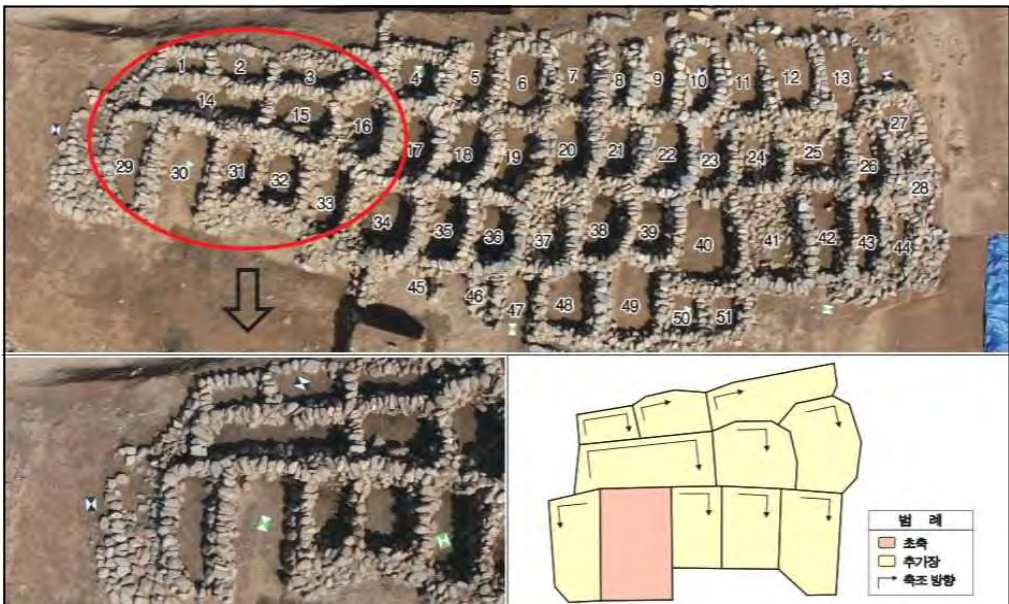
<그림 IV-19>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19)

적석총은 잔존하는 평면형대가 타원형에 가깝고 내부에 51개의 방(묘실)을 갖춘 형태이다. 동벽과 북벽 또는 남벽에 강들을 횡적하여 쌓아올렸고 아래에는 대형의 강들을 이용하여 세로로 받침돌을 세워 벽을 보강하였다. 방의 축조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축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네 벽을 한꺼번에 조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벽을 이용하여 나머지 벽을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방은 시기차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받침돌은 방의 벽을 조성한 후 바깥쪽에 둘러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적석유구(집단 적석묘)는 서쪽에 위치한 30번 방이 최초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방(묘실)이 축조되면서 점차 확장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적석총의 축조방향은 서→동의 방향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방(묘실)은 주로 강과 직교하는 남-북 방향의 주축방향을 가지고 있으나 1·2·3·14·15번 방처럼 강의 흐름과 나란한 동-서 방향의 방도 확인된다. 2번 방 내부퇴적토 채토과정 중에 백제계의 회청색 타날문토기와 함께 화천 원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한 토기편(어깨에 사격자문 시문)도 함께 출토되었고, 동쪽 경계부근 27·28번 방 사이의 내부퇴적토 제거 과정 중 신라 장경호를 모방한 소형 대부배(臺附杯) 3점이 출토되어 삼국시대에 조성된 적석총인 것을 뒷받침하여 주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원삼국시대 경질무문토기편과 동물뼈, 석렬 내부에서 청자편, 백자편, 기와편, 상평통보 등이 상당히 빈도수가 높게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원삼국시대에 초축이 이루어지고 삼국(신라)시대에 방들이 주로 조성된 적석총이 동시기에 폐기되고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상부에 퇴적된 유물이 다양하게 출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예맥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고고자료는 현재로서는 여(철)자형 주거지와 적석총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시피 이 여(철)자형 주거지와 적석총이 그대로 예맥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맥문화의 주된 분포 범위인 강원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고자료로 인식하여야 하며 추후 경기도 지역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는 여(철)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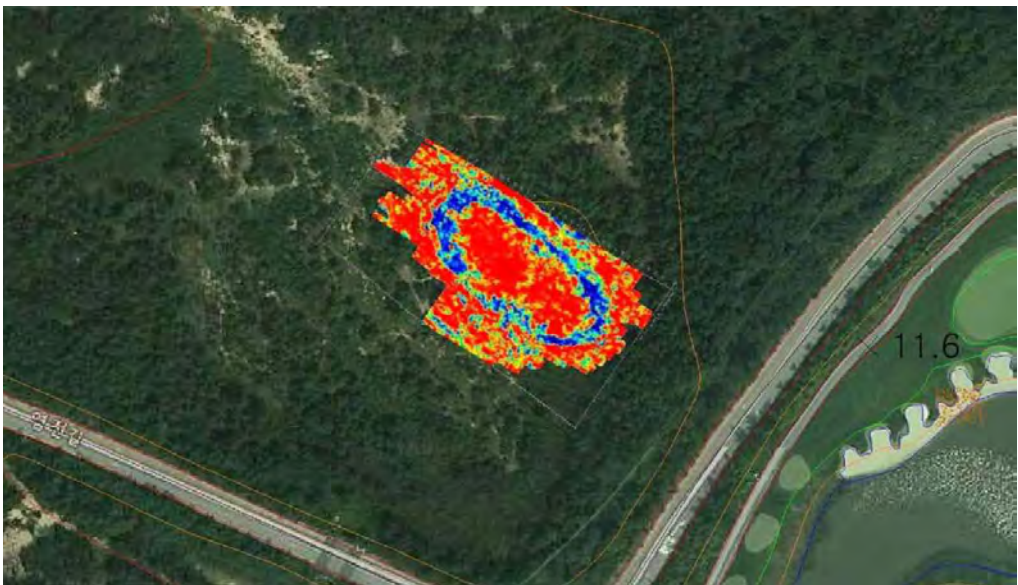
주거지와 적석총과의 차이, 혹은 관계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동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조사된 적석총이 없다. 다만 최근에 강릉 하시동에 적석총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적석총이 확인된다면 강원 영동지역에서 이 시대 최초로 확인된 묘제가 된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더할 때 비로소 명확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20>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 축조 모식도(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19)



<그림 IV-21> 광주 곤지암 적석총 전경(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그림 IV-22> 강릉 하시동 추정적석총 위성사진과 수평단면도 병합결과(장한길로 2018)

3.4 강원지역과 북방지역의 교류 양상

고구려·백제·신라와 같은 고대 국가와 견줄 수는 없지만 예맥이 있었던 강원지역에서도 대외교류의 흔적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예맥역사문화권의 표지적인 역할을 하는 여(철)자형 주거지와 중도식토기의 성립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방지역과의 관련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예맥의 제지세력은 서북쪽의 낙랑, 동북쪽의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 밀접한 상관성 속에서 내재적 발전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 속초 청호동유적이다. 속초 청호동유적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 유구는 주거지 15기, 수혈 4기, 소(小)수혈 66기 등 총 85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속초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중부지방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소위 중도유형문화의 여(철)자형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주거지 내부에서는 중도식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청호동유적은 영동지역에서 처음으로 구릉지에 마을이 입지한 것이 확인된 최초의 예에 해당하며, 연해주 폴체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방어용 취락의 형태가 나타난다. 동반토기 중에는 폴체식토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양 지역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표지유적 중에 하나이다. 청호동유적은 지금의 사구지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주변이 트인 상태의 구릉지였다. 이와 유사한 마을의 입지는 폴체문화의 불로치까유적에서도 확인된다. 구릉지에 입지한다는 것은 방어용 취락으로서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연해주 폴체문화의 특징인 고지성 집락과 유사하다(심재연 2017).

특히 1·1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외반구연용은 경부에 3조의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토기가 불로치까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기형과 문양의 시문 부위와 방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폴체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폴체문화의 남쪽 한계선이 한·중·러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영동지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지속되던 환동해선사문화권과의 상호작용이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심재연 2017).



<그림 IV-23> 청호동유적 원경(좌) 불로치까유적 원경(우)(심재연 2017)



<그림 IV-24> 속초 청호동유적 출토 토기류(예맥문화재연구원 2018)



<그림 IV-25> 불로치까 유적 출토 토기(좌)와 청호동 유적 출토 토기(우) (심재연 2017)

낙랑(계)토기는 연구자들마다 분류안이 다르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태토에 따라 니질계, 석영혼입계, 활석혼입계 토기로 분류되고 있다. 낙랑토기와 낙랑계토기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 낙랑토기를 낙랑지역에서 생산되어 직·간접적으로 반입된 토기라 한다면, 낙랑계 토기는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상이하다. 낙랑(계)토기는 고고학 자료로 구분하기 어려운 대방의 문물을 포함하면서 낙랑토기 제작기술을 수용한 지역에서 일부 변형된 의미 혹은 낙랑토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토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외래 유물의 확산 과정에는 양자 혹은 다자간에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자료의 차원에서 기종과 기형, 태토, 제작기법 등 낙랑토기 제요소 중 일부만이 반영되었거나 다소 변형된 유사한 속성의 토기를 ‘낙랑계토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주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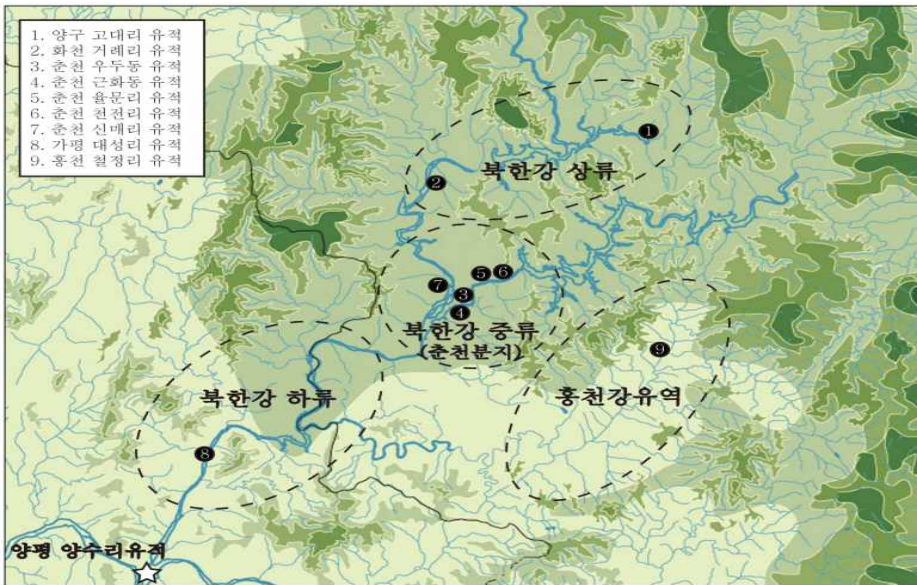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중부지역의 원삼국시대 토기는 무문토기를 뒤이은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 계통으로 이해되고 있기에 낙랑(계)토기의 등장은 기존 토기 문화와 확연히 다른 문화 양상을 대변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신광철 2019).

낙랑(계)토기의 경우 중부지역에서도 출토되는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다. 범위를 강원지역으로 좁혔을 때 영서지역과 영동지역 모두 출토 확인되지만, 영서지역의 경우 북한강유역에서는 낙랑(계)토기의 분포가 두드러지는 반면에, 남한강유역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아 비교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영동지역 또한 낙랑(계)토기의 분포밀도가 높은 편인데, 이러한 양상은 낙랑군과의 정치적 관계 및 교역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장 다양한 기종의 니질계 토기는 중부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낙랑(계)토기로 중부지역에 전래된 기종들 대부분이 실생활 용기이며 취락유적에 분포하고 있다. 영동지역의 경우 낙랑(계)토기가 출토되는 동해 송정동유적과 강릉 안인리유적 등에서 철기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작기법의 전래보다는 철기와 토기제작이 가능한 주민의 이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서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취락에서 철기생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취락이 소수의 생산취락으로부터 철기를 공급받아 소

비하는 소비취락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는 물질문화의 차원에서 외래 계 문물의 존재나 집중현상이 취락군 혹은 주거간의 위계에서 상위를 점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으므로 취락유적에서 확인되는 낙랑(계)토기는 상위 취락 혹은 위계가 높은 단위주거를 중심으로 사용된 소비재로 할 수 있을 것이다(홍주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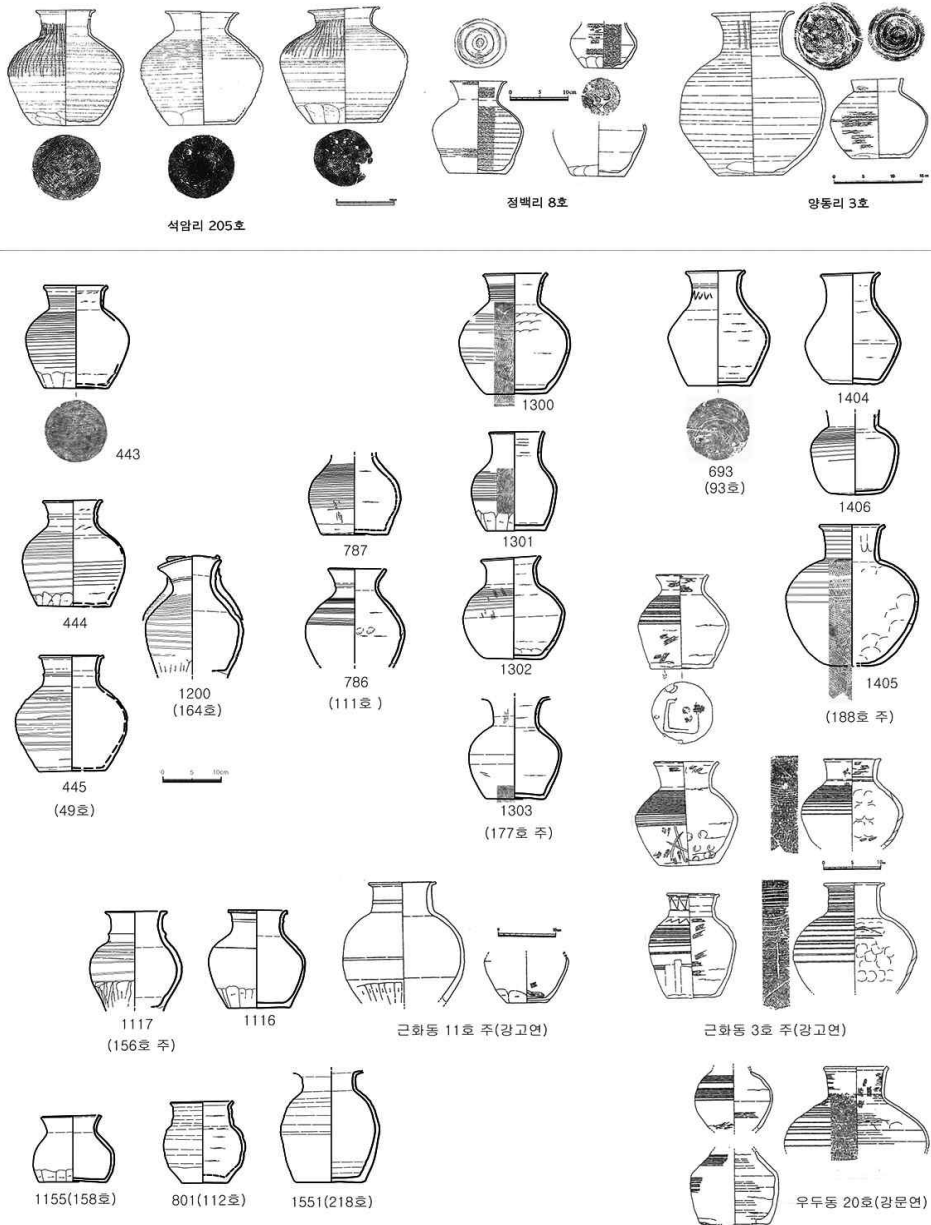
낙랑계토기의 경우 1세기 전반 대까지는 중부지역에서 잘 보이지 않다가, 1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낙랑으로부터 원저단경호, 평저호, 분형토기, 완 등의 기종이 중부지역으로 반입된다. 이후 2세기가 되면 현지에서 제작하게 되는데, 제작의 중심지는 영서지역의 북한강유역이며, 영동지역도 3세기 대까지 그러한 현상이 지속된다. 춘천분지의 경우 북한강유역 수계에서도 압도적인 수량이 출토되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춘천우두동유적의 경우를 봤을 때 연구자마다 파악하는 출토 개체수는 상이하지만, 춘천지역의 다른 유적에 비해서도 수량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두동유적에서 낙랑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낙랑계 유물이 다수 확인된 것을 보아 낙랑과의 교류를 통한 선진문물이 강원도 각지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IV-26> 북한강유역 낙랑계토기 출토 취락유적 분포도(이우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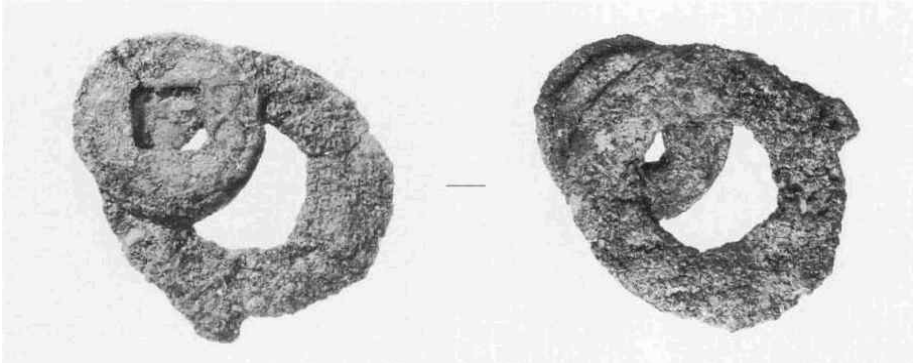
<표 IV-6> 북한강유역 낙랑계토기 출토 현황(이우재 2020)

지역	유적명	기종별 낙랑계토기 출토 현황										합
		단경호	평저호	분형 토기		시루	완	반	세경호	대응	기타	
상류	양구 고대리 유적	11	2	2	1	0	0	0	0	0	10	26
	화천 거례리 유적	8	5	3		0	0	0	2	1	13	32
중류	춘천 신매리 유적	1	2	0		0	0	0	0	0	1	4
	춘천 우두동 유적	71	56	5		5	5	1	6	1	43	193
	춘천 근화동 유적	12	7	0		0	0	0	1	0	2	22
	춘천 읍문리 유적	2	3	1		1	1	0	0	0	1	9
	춘천 천전리 유적	1	2	0		0	0	0	0	0	0	3
하류	가평 대성리 유적	57	7	8		3	2	0	4	0	15	96
홍천강	홍천 칠정리 유적	4	5	0		0	0	0	0	0	0	9
합	9개소	167	89	19	1	9	8	1	13	2	85	394



<그림 IV-27> 낙랑지역과 춘천지역의 평저호(권도희 2017)

강릉 초당동 강릉고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부지 내 유적에서는 오수전 2점이 출토되었다. 해당 오수전은 낙양소구한묘의 5개 유형 중 3~5형과 비슷하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동한 초기에서 중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중국 한대(漢代) 화폐인 오수전의 출토는 낙랑 등을 통한 연계무역의 결과인지, 아니면 중국 내지와의 직접적인 교역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동지방과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V-28> 강릉 초당동 출토 오수전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강릉 안인리유적의 경우 동해안에서 여(철)자형 주거지가 최초로 발견된 유적이며, 낙랑(계)토기 2점이 확인되었다. 강릉 안인리유적에서 출토된 낙랑(계)토기는 한반도 서북한지역과의 관계를 시사해준다. 낙랑이 위치했던 평양은 강릉과는 거리가 매우 먼 곳으로 강릉에서 낙랑계토기가 확인된다는 점은 지역 간에 활발한 문물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강릉 초당동유적에서 출토된 오수전과 안인리유적에서 출토된 낙랑(계)토기를 근거로 볼 때 영동 해안지역은 원삼국시대부터 중국과 꾸준히 교류해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 교역에서 중요한 물품인 화폐와 토기의 출토는 당시 영동지역과 중국의 교류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북방과의 관련 유적, 유물과 함께 제철 유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강 권역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춘천 우두동유적(한강문화재연구원 2017)과 중도유적(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2020)으로서 전자의 유적에서는 (추정) 단야로들과 철재 등이 다수 출토되었고, 후자의 유적에서는 내범을 포함한 용범들이 출토되어 이곳에서 주조철기가 제조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동해안지역의 경우는 동해 송정동유적을 비롯한 각지의 여(철)자형 주거지 취락 등에서 여전히 제철관련 자료들이 꾸준히 출토되고는 있으나 모두 정련과 단련 단야와 관련된 것들이고 제련 관련 유구나 유물은 여전히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이남규 2022: 15-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에서 제철과 관련된 유적이 꾸준히 조사되고 있다. 기왕에 철과 관련되어 충주지역 혹은 진변한 지역에 집중되어 왔던 것에서 나아가 예맥역사문화권에서도 제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춘천 우두동유적의 경우는 낙랑계토기 출토뿐만 아니라 낙랑으로부터 전래된 착정 기술로 만들어진 유물, 대규모 제철공방의 존재, 낙랑과 동북지역 문화 등 다수의 원격지와 관련된 유물을 통해 해당유적이 당시 국제교역의 결절지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므로 앞으로 연구의 진척이 기대된다.

<표 IV-7> 2012년 기준 제철유적 지역별 및 시기별 분류(이남규 2022: 6, 일부 수정)

지역	원삼국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미상	계	
경기	11	7	2	3	8		31	
강원	12	11	3	2	4		32	
충청	북도	1	9	2	4	10	1	27
	남도		1			2		3
경상	북도	16	7	2	1	6		32
	남도	11	11	2		15		39
전라	북도				3			3
	남도		2			3		5
계	51	48	11	10	51	1	172	
북한	4	1			1	1	7	

<표 IV-8> 2012년 이후 제철유적 지역별 조사 수(이남규 2022: 14, 일부 수정)

지역	중부지역		중서부지역		경상지역		전라지역		북한	계
	서울/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기존	27	33	27	3	31	41	3	5		170
신규	14	19	20	4	13	12	16	14		112
소계	41	53	47	7	44	53	19	19		283
지역총계	93		54		97		38		7	289

이상과 같이 예맥역사문화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검토하였다. 영성하지 만 문헌기록이 일부 존재하고 있고, 고고학적 지표로서 여(철)자형주거지와 중도식 토기, 그리고 적석분구묘 등을 설정할 수 있고, 낙랑과 북방지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맥역사문화권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고구려·백제·신라·가야와 같이 특정양식 토기, 특유의 고분 형태, 다양한 금공품을 통한 위세품 시스템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한역사문화권 역시 나뭇의 분구묘와 토기 등을 통해 그 공간적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탐라역사문화권은 제주도라는 명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그 공간적 범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다른 역사문화권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주거지 등이 분포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애초에 고대 역사에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다른 역사문화권에 비해 여전히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에서 역사문화권법을 더욱 열심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V

예맥역사문화권의 활용방안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체계적인 조사, 연구 없이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된 이후 그 개념과 범위 설정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후가 바뀐 상황이다. 그러나 이왕 법이 제정된 이상 법을 활용하여 예맥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예맥역사문화권의 법 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기본방향과 인적(조직)구성

역사문화권정비법의 목적은 제1조에 제시되었듯이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을 구성한 제5장 보칙과 제6장 별칙, 부칙을 제외한 4개 장, 28개 조에서 무려 22개의 조가 보존·정비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특히 정비와 관련된 조항들이 대부분이다. 이 법의 명칭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인만큼 역사문화권 정비가 주 목적이다. 연구에 대한 조항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나 결국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예맥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문화유산의 정비와 복원 및 활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예맥의 문화를 복원하기 위

한 연구 토대와 정보들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역사상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사 과제와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맥역사문화권의 정비는 예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정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이를 끌고 갈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과 시행령,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특별법이란 일반법과 달리 그 제정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강원도의 자체적인 방향성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역사문화권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부서 신설과 공적 기관의 설립 또는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는 관련기관의 지정, 예산 항목 등을 신설 등의 움직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향성 설정에 따라 앞으로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할 것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에 점, 선으로 관리되어 온 문화유산을 면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유산 그 자체만을 관리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 주변 환경까지 정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된 목적은 비지정 문화유산의 관리이다. 지금까지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특별법 등에 따라 사적과 같은 지정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조사, 보존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에는 미처 지정하지 못한 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제껏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유적, 유물을 정비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비지정 문화유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조사, 정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예맥역사문화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직이 구성되지 못하였다.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백제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광역지자체와 공주, 부여, 익산의 해

당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담당자가 파견되었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광역, 기초지자체와 국가기관에서 함께 조직을 구성하면서 전문 인력을 새로 선발하여 완성하였다. 가야 역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에서 전문가가 파견이 되고 새로운 전문가를 선발하면서 역시 조직을 구성하였다. 더욱이 가야역사문화권의 시행을 위해 전라북도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원을 설치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정비법에 추가된 중원역사문화권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선은 연구 포럼을 발족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예맥역사문화권 역시 정비 계획 등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조직 구성을 먼저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강원도지역에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 정비법과 관련한 대응도 늦었지만 이를 추진할 국가 기관도 부재인 악조건이다. 이를 계기로 국립강원문화재연구소 혹은 국립예맥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이미 착공을 하였고, 국립탐라역사문화센터도 이미 예산을 확보하였다. 마한역사문화권 역시 관련 기초지자체에서 서로 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원도 역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역시 지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정비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투자와 노력이 절실하다.

국립기관을 유치하기 어렵다면 강원도 내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와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단순히 각각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다른 역사문화권의 사례를 참조하여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전공자들을 파견, 선발하여야 한다. 이 조직 내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에서는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등에 관한 사항,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강원도 자체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연구재단, 조직을 구성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를 통해 예맥의 역사와 문화와 관한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관리·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학금 역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연구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문화유산 연구, 정비, 활용을 위해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 인력들이 예맥역사문화권에 관한 여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기왕의 기관을 개편하던 새로운 연구재단을 설립하던 가장 중요한 점은 연구 인적 자원 확보와 역할이다. 해당 기관의 성과는 인적 구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기관의 생색내기를 위한 수준에만 연구자를 채용하기보다 채용한 연구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시스템과 사업예산 등)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분야 종사자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마한과 관련된 논문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완성된 연구자가 아닌 현재 학생들에게 마한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비는 보통 대학 교수 혹은 관련 시니어 연구자들이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는 젊은 연구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 참고할 수 있다. 예맥 관련 학술경연대회를 통해 예맥역사문화권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이것이 전문가 육성의 방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비단 연구자 육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역학으로서 ‘예맥학’을 내세울 수 있고, 지역 내 중등교육과정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2022 제3회

CONTEST 馬韓 마한 THE 3RD 학술 경연대회 競演大會

2022 學術 競演大會

공모기간 09. 15. THU 까지

논문 발표 및 심사 09. 30. FRI

전남도청 김대중홀

시상식 10. 06. THU

마한문화공원 일원

주최 한국학호남진흥원 주주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전국 대학(원)생 논문 경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회주제 마한과 관련된 모든 주제 (마한 역사 관련조 율문화 등)
참가자격 고교학, 역사학 등 관련학과 학부(대학원생 (수료자 포함))
응모방법 첨부된 신청서와 논문 파일 제출 (저작권은 신청인 소유)
대학원생: 논문 게재료 (A4용지 5매 이상)
대학원생: 논문 혹은 연구노력 (문형제한없음)

제출처 hycat@hks.or.kr
제출마감 2022.9월 15일

시상내용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상 문화재청장상	1명 200만원	대상 문화재청장상	1명 300만원
금상 전남도지사상	1명 100만원	금상 전남도지사상	1명 200만원
은상 한국학호남진흥원장상	2명 70만원	은상 한국학호남진흥원장상	2명 100만원

문의 062-603-9626 홈페이지 www.hks.or.kr

<그림 V-1> 마한 학술경연대회 홍보포스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 문화유산 정비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비법은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 활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맥역사문화에 해당하는 지정, 비지정 문화유산은 당연히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외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인 정비는 역시 여(철)자형 주거지가 될 것이다. 예맥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거지는 그 특성상 노출되어 있지 않다. 발굴조사 이후에도 대부분 사업 진행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혹은 다시 지하에 묻히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주거지를 다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림 V-2> 황성 둔내유적 나-2호 주거지(도면출처:문화재청)와 둔내유적의 현재 모습



<그림 V-3> 정선 아우라지 적석분묘 정비 완료 후 모습

더욱이 분묘 유적인 정선 아우라지 적석분묘는 복토라는 이름으로 보존 정비하였지만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큰 봉토 정도로만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적석분묘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내부의 별집 구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을 과연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재 아우라지 적석분묘는 작은 둔덕으로 보일 뿐 이곳에 왜 이러한 유적이 있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주 쪽샘유적발굴관에서 공개중인 쪽샘 44호는 적석목곽묘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것이다. 물론 쪽샘유적의 사례와 같이 구조물을 짓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구조의 노출이 병행된 활용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V-1>은 각 지역의 유적전시관과 그 내용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유적이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김규운 2022).

<표 V-1> 각 지역별 유적전시관과 활용 내용(김규운 2022)

연번	유적전시관	활용 내용
1	한성백제박물관 백제	풍납토성의 토층 단면을 실제 스케일로 전시하여 방대한 규모와 세밀한 토목공사기술을 한눈에 살펴보기 용이함.
2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3세기~7세기(백제)	복암리 3호분을 실제 스케일로 복원 전시하여 층위별로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고분을 이동 경로를 따라 확인할 수 있음.
3	북천박물관 가야, 신라	북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고분의 발굴역사, 고분의 구조 및 특징, 출토유물을 확인할 수 있음. 박물관 야외에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됨.
4	쪽샘유적발굴관 신라	경주 쪽샘 44호분을 대상으로 보호각을 설치하여 고분을 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고, 상부에 설치된 벽면을 따라 발굴역사, 고분의 종류와 특징의 확인이 가능함.
5	대가야박물관 가야	고분군 전체를 하나의 산책로로 만들었으며, 지산동 44호분을 실제 스케일로 전시하는 대가야왕릉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음.

고분이나 성곽처럼 노출되지 않은 마을 유적을 미리 예측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또한 필요한 방향이다.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곳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조사에 따라 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맥 문화를 잘 보여주는 유적을 새로이 발굴하고 정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주거 유적을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원화 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하계 서두를 필요 없이 전문인력과 함께 그 대상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역사문화권 설정 지역은 대부분 고분 중심이다. 눈에 띄는, 그리고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유적이다. 반면, 예맥역사문화권은 주거지 중심 지역이다. 고분과는 다르게 눈에 띄지 않는, 말 그대로의 매장문화재이다. 이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예맥역사문화권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주거 문화 조사·연구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학술조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는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유적은 조사가 되더라도 현지 보존 등의 조치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물론 문화유산은 보호, 보존을 제1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모든 유적

을 보존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조사된 유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제대로 된 정비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도 주거지 유적은 여전히 해결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주거지는 대부분 상부가 소실되어 그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다. 어디까지나 추정에 의한 복원을 해야 한다. 복원이 되지 않은 주거지 유적은 대부분 땅 속에 폐허처럼 남은 집자리 흔적만을 남기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정비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유구를 있는 그대로 직접 노출해서 보여주는 방법, 유구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보여주는 방법, 전체를 복원하는 방법, 일부만 복원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일례로 중국 서안의 대명궁은 중국 국가유적공원으로 지정되면서도 전체가 복원된 것은 아니다. 특히 대명궁 내 모든 건물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완성하지 않고 실제 확인된 기둥 구멍에 맞게 기둥만 표시하는 방법, 미니어처 모형으로 대명궁의 전체를 보여주는 방법, 기단만 남기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명궁 내 건물을 보여주고 있다. 기둥만 올린 복원 방법은 추정에 의한 전체 건물 복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면서도 건물의 골격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굴조사 결과를 잘 표현하고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주거지 유적이 중심인 예맥역사문화권에서도 고분이 중심인 문화권과는 다른 다양한 정비·복원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림 V-4> 중국 서안 대명궁 유적 정비 사례

일본 야요이시대를 대표하는 요시노가리유적은 198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그 전모를 밝힌 것으로 유명하다. 나아가 적극적인 복원과 정비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1989년부터 연간 80만~100만 명이 넘는 내·외국인이 방문하였고, 2001년도까지 요시노가리유적을 방문한 방문객의 수가 1,3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며, 현재도 연 2백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요시노가리유적은 일본의 야요이시대를 연구하고, 이를 정비하여 활용하면서 국제적 광역관광명소가 된 모범적인 사례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요시노가리유적의 성공은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역사문화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적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조사와 연구는 물론 정비와 복원은 요원하여 국제적 관광명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홍보식 2020).

실제적으로 역사문화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은 정비(복원) 부분이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주거지 중심의 매장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정비된 곳이 거의 없다.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학습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학술조사에서 밝혀지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역사문화권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인식이다. 그간 조사·연구·복원·정비·활용은 거의 지정 문화재가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정 문화재는 역사문화권법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문화재보호법을 활용하거나 혹은 지자체의 의지로 충분히 보호,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재는 그 동안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지금도 계속 훼손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역사문화권법에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V-5> 일본 요시노가리유적 유적 정비 사례

3. 예맥역사문화 이전과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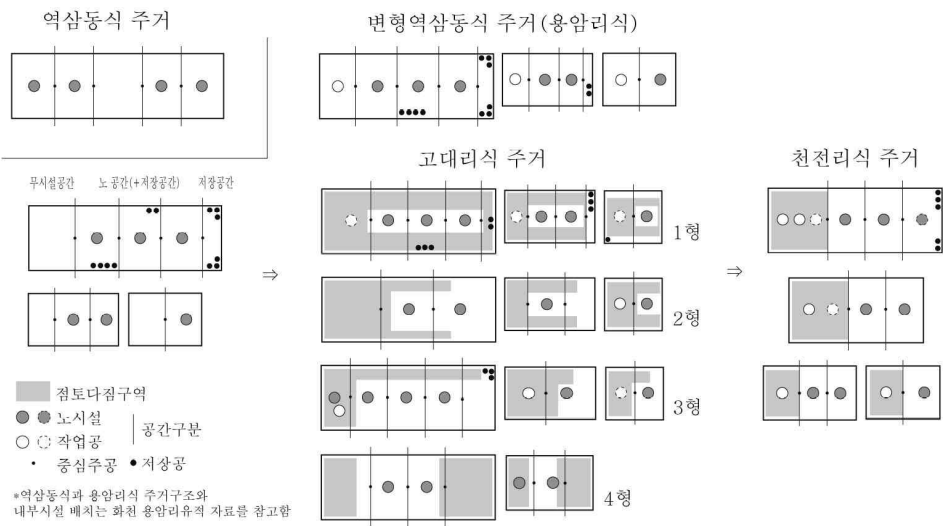
앞서 제시한 <표 IV-2>와 <표 IV-3>을 보면 여(철)자형 주거지가 확인되는 주요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대부분 확인되고 있다. 중도유적이 대표적이다. 이미 강원도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거주가 집중되고 있었고, 원삼국시대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그 종족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청동기시대 이미 많은 인구가 강원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그 문화가 확인되는 것이다.

특히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의 송국리문화와는 다른 천전리식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다. 원형의 작업공과 이샘점토구역으로 대변되는 천전리식주거의 발생에 대해서는 역삼동식 주거구조에 원형의 작업공이 부가된 변형역삼동식 주거가 화천 용암리유적과 춘천 천전리유적 등 북한강 상류지역에 분포하고, 또한 양구 고대리유적에서는 천전리식 주거에 설치된 점토다짐구역의 시원적 형태로 판단되는 고대리식 주거가 분포함으로 이의 영향으로 천전리식주거가 발행하고 그 요인은 석기 생산방식의 변화로 본 견해가 있다(홍주희 2016). 천전리식 주거지가 북한강 상류역의 청동기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독특한 주거 형태임은 분명한데, 이에 더해 분묘의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 지역 청동기시대 생활상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규모 주거 구역과 고인돌, 그리고 독특한 분구묘가 같은 구역에서 함께 확인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천전리유적의 주거와 분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청동기시대 중기 북한강 상류지역 사람들의 마을 구성, 생활과 위계, 매장양식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모습을 복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김규운 2019).

예맥역사문화권을 설정하고 그 문화유산을 연구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자연스럽게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와 보호, 활용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예맥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주거 유적과 함께 한반도의 주거 문화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예맥 이후 강원지역에는 삼국과 관련하여 유적이 확인된다. 물론 예맥의 역사와 문화가 아니지만 이 정비법 자체가 강원도 지역의 고대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삼국시대 유적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지역에서는 삼국시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삼국의 중심지와 멀고, 그와 관련되는 유적, 특히 고분군의 조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이다.

영서지역의 경우는 대개 한성기 백제와 관련이 있었고, 이후 고구려의 남하, 그리고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함과 함께 영서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역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원주 법천리 고분군을 통해 마한시기 이후 백제 중앙과 아주 관련 깊은 고분군이 형성되고, 이후 신라화 되는 과정을 일부 살펴볼 수 있는 정도이다. 고구려 관련 유적은 춘천 방동리고분, 신매리고분 등 일부 확인되나, 서울·경기지역과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관방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양시은 2011). 역시 그 점유 시기와 과정, 방법에 대해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가 많다(김규운 2019).



<그림 V-6> 춘천 천전리유적(상)과 천전리식 주거의 출현과정 모식도(하)(홍주희 2018)



<그림 V-7> 강원지역 고분의 분포(김규운 2022)

특히 고분 유적은 삼국의 명확한 국가 설정이 가능하여 정비방안에 따라 그 활용 가능성이 크다. 발굴조사를 통해 내부를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춘천 지역은 한반도 어느 지역보다 고구려 고분이 밀집되어 있다. 영동지역은 신라고분이 일찍부터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측면은 중원역사문화권의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으나 강원지역 내 예맥문화 이후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함께 정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권법이 기본적으로 ‘고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 강원 의 고분 현황표(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0, 일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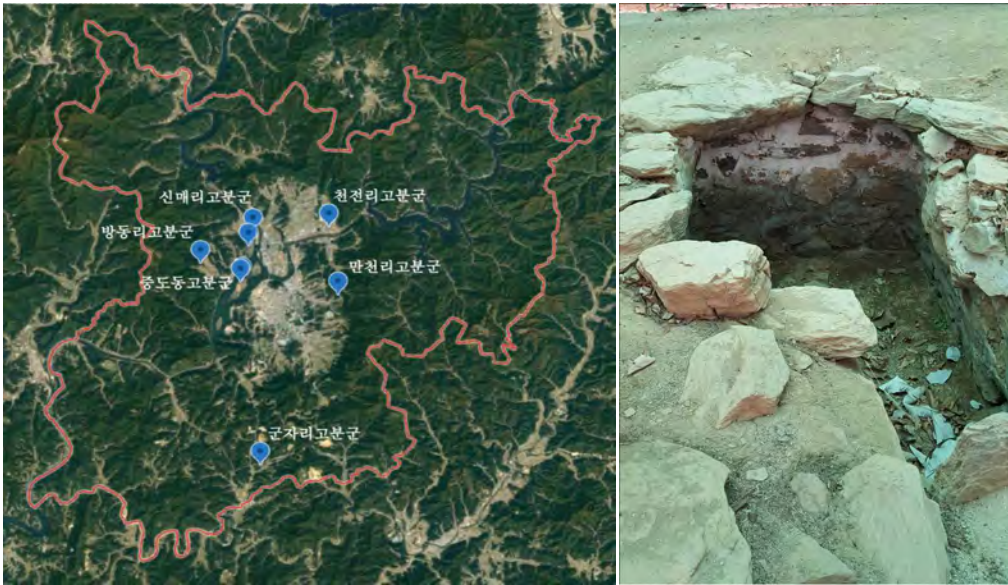
지역명	유적	위치	시대	내용	비고
철원군	양지리고분군	근남면 양지리 산263	미상	2000년 고분 1기 지표조사	
화천군	거례리고분군	하남면 거례리 527외	백제 추정	2011년 황혈식석실묘 2기	
양구군	현리고분군	방산면 현리	미상	일제강점기 고분 6기 조사보고	
	금악리고분군	방산면 금악리	미상	일제강점기 추정 고분 5기 보고	
	군량리고분군	양구읍 군량리	미상	일제강점기 추정 고분 1기 보고	
	월명리고분군	양구읍 월명리	미상	일제강점기 추정 고분 1기 보고	
	공수리고분군	양구읍 공수리	미상	일제강점기 추정 고분 12기 보고	
춘천시	신매리고분 I · II	서면 신매리 177-14 · 302	고구려	1982년 황혈식석실묘 1기, 2019년 황혈식석실묘 1기	도기념물 제46호
	방동리고분군	서면 방동리 816	고구려	1995 · 2004년 황혈식석실묘 2기	도문화재 자료 106호
	천전리고분	신북읍 천전리 891-7	고구려	2002년 황혈식석실묘 1기	
	중도고분군	중도동 430 · 357-10	고구려	2017년 토광묘, 수혈식석곽묘 등 7기	
	군자리고분	동산면 군자리 1097-5	고구려	2019년 황혈식석실묘 1기	
	만천리고분군	동면 만천리 산15-16	고구려	1995년 황혈식석실묘 2기	
	옥천동고분군	옥천동 1-1	신라	1984년 수혈식석곽묘 5기	
	발산리고분군 I · II	신북읍 발산리 253 · 산17-1	신라	2002년 파괴 고분 1기, 2008년 횡구식석실묘 1기	
	증리고분군	신동면 증리 산97-1	신라	1997년 고분 14기 지표조사	도기념물 제45호
인제군	-	-	-	-	
홍천군	철정리고분군	두촌면 철정리 1246-16	고구려 추정	2005~2007년 추정 횡구식석실묘 1기, 황혈식석실묘 3기	
	희망리고분군 I · II	홍천읍 희망리 산38-1 · 산29	신라	1973 · 1985년 매장문화재신고 2003년 추정 고분 3기, 수혈식석곽묘 1기 지표조사	
	장전평리고분	홍천읍 장전평리 185	신라	1979년 매장문화재신고	

지역명	유적	위치	시대	내용	비고
	태학리고분	홍천읍 태학리 산12-1	신라	1966년 매장문화재신고	
	역내리고분군	두촌면 역내리 산68-1	신라	2003년 황혈식석실묘 1기, 황구식석실묘 13기	
형성군	영랑리고분	둔내면 영랑리 398-1	신라	1983년 파괴 고분 1기	
평창군	종부리고분	평창읍 종부리	미상	2010년 파괴 고분 1기	
	하리고분	평창읍 하리 185-1	미상	1984년 고분 1기 지표조사	
원주시	법천리고분군	부론면 법천리 1532	백제, 신라	1973년 매장문화재신고 1999~2007년 목곽묘, 황구식석실묘, 황혈식석실묘 등 30여기	
	반곡동고분군	반곡동 1470	신라	2008년 수혈식석곽묘 6기	
영월군	-	-	-	-	
정선군	송계리고분군	임계면 송계리 산53	신라	1970년 장경호 1점 보고 1996·1997·2018년 황구식석실묘 등 150여기 지표조사	도기념물 제70호
	임계리고분군	임계면 임계리 718-1	신라	2004년 옹관묘 4기, 수혈식석곽묘 7기	
	신월리고분군	정선읍 신월리 901	신라	1990년 수혈식석곽묘, 추정 황구식석실묘 등 12기	
	아우라지적석분묘	여량면 여량리 191	신라	2016·2017년 적석분묘(51개의 묘실) 1기	
	덕천리고분군	신동읍 덕천리(소골)	미상	1996년 파괴 고분 1기 지표조사	
고성군	초도리고분	현내면 초도리 258	미상	2006~2008년 토광묘 1기	
속초시	-	-	-	-	
양양군	포월리고분군	양양읍 포월리 247	고구려, 신라	1992년 수혈식석곽묘 2기, 황혈식석실묘 1기	
	후포매리고분군 I·II	현남면 후포매리 산32·산59-1	신라	1994·2003년 지표조사, 2020년 황구식석실묘 1기	
	원포리고분군	현남면 원포리 산78	신라	1993년 수혈식석곽묘 7기	
	조산리고분군	양양읍 조산리 450-1	신라 추정	1994·2003년 추정 고분군 지표조사	

지역명	유적	위치	시대	내용	비고
강릉시	주문리고분군	주문진읍 주문리 419	신라	1997년 수혈식석곽묘 2기	
	교항리고분군	주문진읍 교항리 560-1	신라	1994·1996년 지표조사	
	연곡고분	연곡면 방내리 44-1	신라	1984년 고분 1기 지정	도문화재자료 제53호
	방내리고분군	연곡면 방내리 산74 외	신라	1990·2003·2008년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등 23기	
	영진리고분군	연곡면 영진리 산40 외	신라	1989·1993·1996년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등 59기 2001년 횡혈식석실묘 2기 지표조사	도기념물 제42호
	송림리고분군	연곡면 송림리 산8	신라	2000년 수혈식석곽묘 1기	
	방동리고분군	사천면 방동리 산8	신라	2004년 토광묘1기, 파괴 고분 1기	
	사기막리고분군	사천면 사기막리 산2-1	신라	2013년 횡혈식석실묘 2기	
	노동리고분군	사천면 노동리 산69	신라	2007년 추정 고분군 지표조사	
	안현동고분군	안현동 89-13	신라	2009년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등 62기	
	강문동고분	강문동 124-2	신라	2005년 옹관묘 1기	
	초당동고분군	초당동 84-2 외	신라	1969·1993~2021년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등 300여기	사적 제490호
	송정동고분군	송정면 산103 외	신라	2018년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등 32기	
	병산동고분군	병산동 28-4 외	신라	1998·2001·2004년 옹관묘, 수혈식석곽묘 등 109기	
	입암동고분군	입암동 산671-3	신라	2005년 횡혈식석실묘 1기, 화장묘 1기	
	홍제동고분군	홍제동 111-8	신라	2006년 횡혈식석실묘 2기	
	금산리고분	성산면 금산리 산31	신라	1997년 횡혈식석실묘 1기	
	학산리고분군	구정면 학산리 산9-1	신라	1963년 매장문화재신고, 1994·2020년 고분군 지표조사	
하시동고분군	강동면 하시동리 산130-1 외	신라	1909년 수혈식석곽묘 일부 조사 1970년 석곽묘 2기, 2003년 고분군 지표조사	도기념물 제18호	

지역명	유적	위치	시대	내용	비고
강릉시	안인리고분군	강동면 안인리 산16-1	신라	1989~1991년 옹관묘, 수혈식석곽묘 등 8기	
	안인리 송촌고분군	강동면 안인진리 산19	신라	1998년 추정 수혈식석곽묘 20여기 지표조사	
	모전리고분군 I·II·III	강동면 모전리 산107-3·산382 일대	신라	1994년 파괴 고분 수십 여기 보고 1998년 추정 고분군 지표조사	
	금진리고분군 I·II·III	옥계면 금진리 산112 일대	신라	1998년 추정 수혈식석곽묘, 황구식석실묘 등 수십 여기 보고	
	주수리고분군 I·II	옥계면 주수리 산17-1·산39	신라	1997년 고분군 보고, 2001년 수혈식석곽묘 3기	
	교동고분군	교동·포남동 구릉 일대	신라 추정	1916년 고분 조사, 1970년대 이후 대부분 파괴	
	장현동고분군	장현동 모산봉 일원	신라 추정	1997년 파괴 고분 4~5기 보고	
삼척시	옥원리고분군 I·II·III	원덕읍 옥원리 산114-1	신라	2000년 3개소 지표조사 2012년 수혈식석곽묘, 황구식석실묘 등 38기	
	숙암리고분군	하장면 숙암리 산76-1	신라	추정 수혈식석곽묘, 추정 황구식석실묘 등 50여기 분포	도기념물 제61호
	호산리고분	원덕읍 호산리 500	신라	2011년 황혈식석실묘 1기	
태백시	백산동고분군	백산동 산26-2	신라	1999년 고분 15기 지표조사	
	황지동고분	황지동 33-25	신라	1984년 매장문화재신고	

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소계	합계
유적수	1	1	5	11	-	6	24	
시·군	형성군	평창군	원주시	영월군	정선군	고성군	소계	98
유적수	1	2	2	-	5	1	11	
시·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소계	
유적수	-	5	31	12	13	2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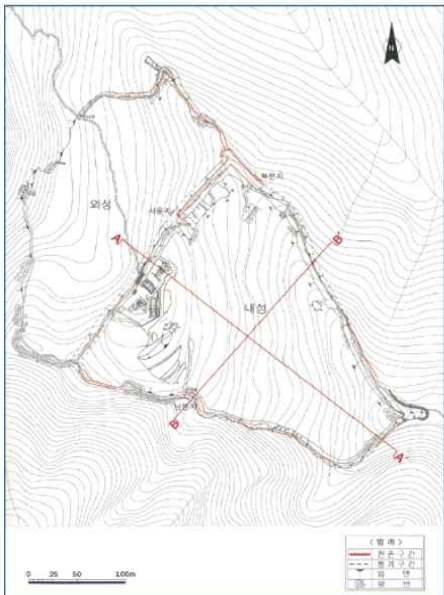


<그림 V-8> 춘천지역 고구려 고분 분포도(김규운 2022) 및 춘천 방동리고분



<그림 V-9> 니하(泥河, 한강상류) 주변의 신라 산성 배치도(윤성호 2019)

또한 남한강 중상류지역에는 고구려와 대치하였던 신라 산성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역시 이를 잘 정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양산성 저수시설(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8)



정양산성 저온저장시설(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정양산성 배치도(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8)

<그림 V-10> 정양산성 전경 및 주요 시설

4. 전반적인 과제

강원도의 고대문화를 밝힐 수 있는 예맥역사문화권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 간 약간의 논의 과정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령에 의해 예맥역사문화권의 지정이 먼저 이루어졌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맥 자체에 대한 연구 방향 설정이다. 예맥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그 문화적 권역을 파악해야 역사문화권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예맥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은 ‘예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다 논하지는 않더라도 기초적인 예맥 문화의 설정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맥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권정비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남북 상황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중도문화, 그리고 중도식 토기 등의 성립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는데, 연해주와 동북지방과의 관련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그 중간지역인 북한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남북 정세 속에 발굴조사에 따른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중도문화의 형성과정, 그리고 나아가 종족 이동과 같은 다양한 견해에 대한 검증, 혹은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공예도성을 시작으로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다양한 시대, 분야에도 고고학적 연구가 진척되리라 생각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강원도 자체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강원도에 대한 일제강점기 이래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이 당장의 문제로 생각된다(김규운 2018).

다음, 고고자료와 연구성과 확산의 문제이다. 한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학’으로서의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지역의 양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다른 지역과의 비교,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지역이 더욱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연구 동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맥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머물러 있고, 그 연구 범위, 연구 성과가 한반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함께 연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지역의 고고자료, 연구 성과가 강원지역에서만 소비되지 않고,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함께 이용될 때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원 고고학의 자료와 연구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김규운 2018).

더불어 강원도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제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이유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접근을 불허하는 시대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이기 때문에 나뭇의 관리번호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역사문화권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본에서도 ‘일본유산(JAPAN HERITAGE)’을 운영하고 있다. 역시 면적 관리를 강조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예맥역사문화유산’ 등의 이름으로 함께 관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V-11> ‘일본유산(JAPAN HERITAGE)’ 홈페이지

이를 통해 관광과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치지 않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각 광역지자체별로 광역권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광역권 관광개발을 위해 개발 대상지의 공공 관광투자를 확대할 경우 대상지 내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경로는 공공 관광투자 확대→관광자본량 증가→관광서비스 생산 증가로 요약된다. 즉, 광역권 관광개발 정책은 정책 대상지의 관광인프라 확대를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책 대상지의 관광자본 확대는 일반자본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일반투자와 일반재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 관광투자 확대가 일반투자를 확대해 일반재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김재현·정상철 2020). 이러한 계획과 문화유산을 연동하여 개발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 생각된다.

<표 V-3> 광역권 관광개발 추진 현황(김재현·정상철 2020)

구분	기간	예산 및 사업 수	대상지역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00~09년 (10년)	3조 6,257억원 (64개 사업)	부산 및 경남, 전남 22개 시군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00~10년 (11년)	1조 5,308억원 (186개 사업)	경북 11개 시군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10~17년 (8년)	3,904억원 (31개 사업)	부산 및 경남, 전남 27개 시군구
지리산권 관광개발	'08~17년 (10년)	2,367억원 (25개 사업)	전북, 전남, 경남 7개 시군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08~17년 (10년)	2조547억원 (57개 사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20개 시군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09~18년 (10년)	2,551억원 (17개 사업)	부산, 울산 및 강원, 경북 13개 시군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10~21년 (12년)	2조3,283억원 (50개 사업)	대구 및 경북 23개 시군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13~22년 (10년)	2,391억원 (29개 사업)	인천 및 경기, 강원 10개 시군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3~22년 (10년)	2,670억원 (32개 사업)	충북, 강원, 경북 17개 시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7~26년 (10년)	6,167억원 (40개 사업)	세종, 충남, 전북 18개 시군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19~28년 (10년)	7,947억원 (47개 사업)	대전, 세종, 충북, 충남 26개 시군

이상과 같은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명시된 사업의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협업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따르기 위해 노력을 유발시키고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유산의 관리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하게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0, 『강원도사 3』.
-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0, 『강원의 고분 문화』.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춘천 신매리 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유적』.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강릉고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부지 내」 『江陵地域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홍천 철정리 II유적(A지구)』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19, 『정선 아우라지유적』.
- 강인욱 외, 2008, 『고고학으로 본 옥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강중훈, 1995, 「三國史記 初期記錄에 보이는 ‘樂浪’의 實體」, 『韓國古代史研究』 10, 한국고대사학회.
- 강현숙, 2005, 「서울지역 적석층에 대하여」, 『鄉土서울』66.
- 권도희, 2017, 「중부지역 낙랑계 토기 및 철기에 대하여」, 『고고학』16-3, 중부고고학회.
- 권오영,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서울경기고고학회.
- 권오영, 2011, 「한성백제의 시공적 상한과 하한」, 『백제연구』5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21,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기본 계획(안)」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동아시아 1~3세기의 고고학』.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고고학사전』.
- 국사편찬위원회, 1983, 『한국사론 13』.
- 국사편찬위원회, 2002, 『신편한국사』.
-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한국사 4』.
- 김규운, 2019, 「강원고고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강원사학』33, 강원사학회.

- 김규운, 2022, 「강원지역의 고분 분포 현황과 정비·활용 방안」, 『강원사학』39, 강원사학회.
- 김성태, 2002, 「百濟積石塚의 歷史考古學的 性格과 그 意味」, 『畿甸考古』2.
- 김원룡, 1973, 『韓國考古學概說』, 일지사.
- 김용백, 2010, 『春川 貊國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일규, 2007, 「한강유역 원삼국시대의 성립과정」, 『원삼국시대의 한강유역』, 제3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정기발표회 발표자료집.
- 김재홍, 2015, 「생업으로 본 한과 예의 종족적 특성」, 『한국고대사연구』79, 한국고대사학회.
- 김준규, 2013, 『중도식 무문토기 상대편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식·김규운·권오빈·이상규, 2021, 「일제강점기 강원지역 고적조사 현황과 전망」, 『강원문화연구』44,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 김진영, 2022,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 동·북부지역 적석분구묘의 재인식」, 『백산학보』123, 백산학회.
- 김창석, 2009, 「고대의 영서 지역과 춘천맥국설」,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태학사.
- 김창석, 2015, 「3세기 이전 춘천 지역의 취락 양상과 정치체의 형성」, 『新羅文化』4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김창석, 2020. 「1~3세기 한반도 중서부지역 정치체의 동향」,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 강원고대문화연구03, 강원연구원·강원학연구센터·국립춘천박물관, 2020.
- 노혁진, 2004, 「중도식토기의 유래에 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19, 호남고고학회.
- 박경신, 2016.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외줄구들의 편년과 전개양상」, 『고고학』15-3, 중부고고학회.
- 박경신, 2018, 「북한강 상류역 원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 『고고학』17-2, 중부고고학회.
- 박경신, 2019, 『原三國時代 中島類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경신, 2020a, 「原三國~三國時代竝行期 柯坪埋類型 住居 研究-동해 송정동 유적을 중심으로-」, 『송실사학』45, 송실사학회.
- 박경신, 2020b, 「原三國時代 中東部文化圈 住居 研究」, 『고고학』19-3, 중부고고학회.
- 박순발, 1989, 「漢江流域 原三國時代의 土器의 樣相과 變遷」, 『韓國考古學報』23, 韓國考古學會.
- 박순발, 1996, 「한성백제 기층문화의 성격-중도유형문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2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박순발, 1997, 「한강유역의 기층문화와 백제의 성장과정」, 『한국고고학보』 36, 한국고고학회.
- 박순발, 2006, 「한국 고대사에서 종족성의 인식」, 『한국고대사연구』44, 한국고대사학회.
- 박중국, 2011a, 『몸자형 주거지를 통해 본 중도문화의 지역성』,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중국, 2012, 「중도문화의 지역성-‘중도유형문화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2, 중앙문화재연구원.
- 박중국, 2016, 「중부지역 쪽구들 문화의 계통과 전개」, 『고고학』15-1, 중부고고학회.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 『광주 곤지암리 I 유적』.
- 백홍기, 1991, 「명주군 안인리 집자리 발굴조사 약보고」, 『제1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 송기호, 2006, 『한국의 고대의 온돌』,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만영, 2011, 「한반도 중부지역 취락의 발전과 정치체의 성장-청동기시대~한성백제기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만영, 2015, 「중도식주거 외출구들의 변화와 의미」, 『고문화』8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송호정, 2007, 「高句麗의 族源과 濊貊」, 『高句麗渤海研究』27, 高句麗渤海學會.
- 송호정 외, 2016, 『한국고대사 1, 고대 국가의 성립과 전개』, 푸른역사.
- 신광철, 2019, 「삼국형성기의 대외교류 -강원도 諸 세력의 '역량' 검토-」 『고대 강원의 대외교류』,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심재연, 2007, 「강원도 중도식토기 문화에 보이는 동북지방 요소」,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심재연, 2009, 「한성백제기의 영동·영서」, 『고고학』8-2, 중부고고학회.
- 심재연, 2010, 「한성백제기 한강 중·상류 지역의 적석층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3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심재연, 2017, 「최근 조사성가로 본 영동·영서지역과 북방지역의 상호작용-철기~삼국 시대를 중심으로-」, 『시베리아연구』 21-1.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평창 평창읍 평창강 수계 수해복구공사부지내 유적 발굴 (시굴)조사 보고서」.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동해 망상동유적Ⅱ』.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동해 송정동유적Ⅱ』.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9, 『동해 망상동유적Ⅲ』.
- 유은식, 2006, 「두만강유역 초기철기문화와 중부지방 원삼국문화에 대한 일 연구」, 『崇實史學』19, 崇實史學會.
- 유은식, 2014, 「한반도 북부지방 토기문화를 통해 본 중부지방 원삼국문화의 계통」, 『고고학』13-3, 중부고고학회.
- 유은식, 2015, 「동북아시아 초기 쪽구들의 발생과 전개」, 『고고학』14-3, 중부고고학회.
- 윤용구 외, 2012, 『濊貊 史料集成 및 譯註』, 백산자료원.
- 이나경, 2013, 『중부지역 출토 낙랑계토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남규, 2022, 「제철유적 조사 새로운 10년 기록의 의의와 과제-2012년 자료집성의 성과에 기초하여-」, 『한반도 제철유적 조사연구의 흐름』,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한국문화유산협회.

- 이동희, 2008, 「最近 研究成果로 본 漢江·臨津江 積石塚의 性格」 『韓國史學報』32
- 이상길, 2014, 『原三國~漢城百濟期 北漢江流域의 鐵器文化』, 한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우재, 2020, 「북한강유역 낙랑계토기의 변천 양상과 지역성」,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70, 韓國上古史學會.
- 임영진, 2005, 「백제 한성기 묘제의 다양성과 그 의미」, 『고고학』4-1, 중부고고학회.
- 장한길로, 2018, 「GPR탐사를 이용한 강릉 하시동 추정 적석총 유구 분포 조사」,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국립춘천박물관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정인성, 2009, 「가평 대성리유적 출토의 외래계 유물」, 『가평 대성리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 정치영 외, 2018, 「화천 원천리 鋤耨支理적석총의 현황과 구조」, 『백제학보』26, 백제학회.
- 정치영 외, 2019, 「새로 찾은 ‘양평 양근리 적석총’의 현황과 특징」, 『백제학보』30, 백제학회.
- 정치영, 2020a, 「중부지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분묘 유형과 출토유물의 공간적 접점」, 『접점Ⅲ, 중부지역 원삼국~한성백제기의 고고학적 공간』, 제17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자료집,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정치영, 2020b, 「중도문화 묘제의 성립과 전개」, 『문헌과 고고자료 속의 고대 강원』, 강원연구원·강원학연구센터·국립춘천박물관.
-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82, 『중도발굴조사보고』.
- 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2020, 『춘천 중도동유적』.
- 최몽룡·최성락, 『한국 고대 국가 형성론-고고학상으로 본 국가』, 1997.
- 최병현, 1988, 「원삼국토기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고학보』38, 한국고고학회.
- 최복규, 2007, 「춘천지역의 유적과 맥국」, 『江原人文論叢』1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 최영민, 2016, 『古代 韓半島 中部地域의 製鐵技術 研究』, 한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진석, 2008, 「百濟 積石塚의 形式 및 編年 研究」,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한지선, 2013, 「한성백제기 취락과 토기유물군의 변천양상」, 『중앙고고연구』12, 중앙문화재연구원.
- 춘천문화원, 2018, 『고대문화』.
- 한국고고학회, 2008, 『한국 고고학 강의』, 진인진.
- 한국고대사연구회, 1990,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한반도의 제철유적』.
- 한성문화재연구원, 2020, 『홍천 태학리 유적 I』
- 홍주희, 2014, 「중부지역 낙랑(계)토기」, 『낙랑고고학개론』, 진인진.

Abstract

A Basic Study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of Ancient Yemaek based on Archaeological Data

Kim, Gyuun

In June 2020, the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of Historical and Cultural Rights (abbreviated a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ights Maintenance Act) was enacted. At this time, there were active movements in local governments such as Gaya culture and Mahan culture, and six cultures were established.(Goguryeo·Baekje·Silla·Gaya·Mahan·Tamra history and culture)

In this situation, Gangwon-do did not belong to the history and culture setting. Gangwon-do is far from the central area of the Three Kingdoms, and its affiliation is unclear due to its geopolitical location when the Three Kingdoms form a tomb culture. Therefore, there is a lack of data because it was not able to build a lot of tombs even though it was under the influence of Goguryeo, Baekje and Silla depending on the time. Fortunately, on January 18, 2022, due to the amendment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ights Improvement Act, the Yemaek Historical and Cultural Rights were additionally established along with the Jungwon Historical and Cultural Rights, but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rights in a situation where preparation i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historical and cultural rights is a big task on the one hand.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Yemaek. Although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Yemaek,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whole Yemaek is not well established because it is biased toward the setting of individual countries. It is not clear what to set up, restore, and utilize in the future because it is not clear what is the Yemaek culture. It is a part of long-term research.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the legislation that has already been enacted, it is important to make long-term research and how to utilize it.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in various fields such as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composition of dedicated organization, and training of succeeding genera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pproach the establishment of the ancient history and culture area of Gangwon-do through a brief review of how to look at the history and culture of Yemaek.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opose the overall direction related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Yemaek, such as what kind of organization should be formed and what kind of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ights improvement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ctive discussion on the substantive approach, pre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ancient history and culture in Gangwon-do.

고고자료로 본 고대 예맥역사문화권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of Ancient Yemaek
based on Archaeological Data

2022년 12월 인쇄

2022년 12월 발행

발행인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발행처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4265)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전화 : (033) 250-2982

홈페이지 : <http://www.gangwonstudies.re.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검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고자료로 본 고대 예맥역사문화권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of Ancient Yemaek
based on Archaeological Data

김규운
Kim, Gyuun

약력
강원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한국고고학회 운영위원